

©T&CO. 2014



Style

조선일보

OCTOBER 2014 vol.115



cartier.co.kr

INTRODUCING TIFFANY T

서울 갤러리아 EAST 롯데백화점 본점
롯데백화점 강남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진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현대백화점 안국점본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현대백화점 신촌점 경기 AK 플라자 문당점
인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대구 현대백화점 대구점
부산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신세계백화점 창원시점
TIFFANY.KR



TIFFANY & Co.
NEW YORK SINCE 1837

Cartier

Panthère de Cartier New Collection





BURBERRY

Dior PRESTIGE

새로운 디올 프레스티지 '르 넥타 드 뉘'
첫 꽃봉오리에서 추출해 낸 강한 생명력,
매일 아침, 새로 피어난 피부를 만나보세요.

나이트 타임을 위한 특별한 에센스

로즈 드 그랑빌의 가장 귀한 성분을 담은 디올 프레스티지의 '르 넥타 드 뉘',
꽃이 활짝 피어나기 직전의 꽃봉오리는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첫 꽃봉오리에서 추출된 귀한 성분을 담았습니다.

디올 사이언스의 특별한 과정: 냉침법을 통해 수 십 겹의 꽃잎 속에 담긴 생명력이 밤 사이 천천히 피부에 스며들어 빠르고 깊숙하게 효과를 전달합니다.
얼굴에 드러난 나이의 고민으로부터 멀어진 듯, 아침에 눈을 뜨면 매끄럽고 빛나는 피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달라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디올 프레스티지는 디올 가든에서 재배되는 로즈 드 그랑빌을 약 14년여 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OMEGA

www.omegawatches.com



Ω
OMEGA
De Ville Butterfly

청담 부티크 02 511 5797 • 신세계 강남점 02 3479 6025 • 롯데 잠실점 02 2143 7266 • 현대 무역센터점 02 3467 8632
현대 목동점 02 2163 1283 • AK플라자 분당점 031 708 5520 • 현대 대구점 053 245 2249 • 현대 부산점 051 667 0417



16

46



표지에 등장한 이미지는 카르띠에의 영원한 뮤즈인 팬더를 모티브로 한 팬더 드 카르띠에 링이다. 올해 탄생 1백 주년을 맞은 팬더 라인을 독특하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재해석했다. 오픈스톱 코를, 에메랄드로 눈을 표현하고, 기하학적인 컷팅을 도입한 오픈워크 기법으로 완성한 팬더의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문의 1566-7277



34



28

- 16 **NANI MARQUINA** 비르셀로나 출신의 디자이너 나니 마르키나는 양탄자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장인들과 함께 실을 엮고 베를 짜기를 배웠다. 그녀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순한 갈래를 거의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데는 그런 성세하면서도 저돌적일 정도로 강한 열정이 뒷받침됐을 것이다.
- 18 **BLACK MYSTERY** 눈을 땔 수 없는 강렬한 오라와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여성 블랙 워치.
- 20 **SOLID BEAUTY** 대담하고 인상적인, 구조적 디자인이 매력적인 주얼리 브랜드의 볼드 링 컬렉션.
- 22 **ICONIC ESSENTIALS** 브랜드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주얼리.
- 24 **BEST BAGS** 계절의 변화가 빈가운 것은 늘 새롭게 등장하는 신상 백 때문일지도 모른다. 우리를 설레게 하는 2014 F/W 가방 열전.
- 28 **THE ULTIMATE SOPHISTICATION** 미국 쿠파티노의 플린트 센터.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전 세계 미디어를 대상으로 열린 애플의 신제품 발표 행사는 팬 사인회를 방불케 했다.
- 30 **TECH HOLIC** 새로운 전자 제품이라면 솔깃해지는 당신을 위한 테크 리스트.
- 32 **2014 F/W MEN'S RUNWAY REPORT** 모두 다 입고 싶은 충동이 들 만큼 커머셜하고 실용적인 맨즈 웨어 트렌드.
- 34 **THE FALL BOY** 깊고 풍부한 눈빛, 부드러운 카리스마, 감미로운 표정까지, 이진욱의 기질이 무르익어간다.
- 42 **A REVOLUTIONARY SPIRIT** 오메가의 클래식 라인, 드 빌 컬렉션과 혁신적인 놀라움을 담은 코-엑시얼 무브먼트에 대한 이야기.
- 44 **MODERN ICON** 티파나가 첫선을 보인, 타협할 수 없는 모던함을 담은 TIFFANY T 컬렉션.
- 45 **DEBUT MASTERPIECES** 가장 아름다운 보석의 대명사 그라프가 하이 주얼리의 상징, 안티크 비엔날레에서 데뷔 무대를 가졌다.
- 46 **THE SPLENDID JOURNEY** 역사는 짧지만 탄탄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는 파리미자이니 플러리에의 매뉴팩처를 소개한다.
- 48 **24HOURS 7DAYS**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특별하게 해주는 발리의 2014 F/W 컬렉션.
- 50 **SYNERGIE & ACTIF** 기술과 정성, 풍부한 텍스처로 라뉴얼되어 다시 찾아온 사나고티프 라인의 특별한 변신.
- 52 **GOLDEN PREMIUM** 화려함을 더하는 골드 뷰티 아이템.
- 53 **AUDACIOUS LIPSTICKS** 론칭 20주년을 맞은 코즈메틱 브랜드 나스(NARS)의 '어디셔스 립스틱'.
- 54 **EDITOR'S PICK** 그늘막에 누워 여유롭게 책 한 권 읽고 싶은 풍요로운 계절. <스타일 조선일보> 기자들의 화장품 리스트.
- 55 **비르는 향수, 향수 바디크림** 감각적인 향의 세계를 선보여온 영국 정통 향수 브랜드 조 말론 런던이 향수 한 병을 그대로 담은 바디크림을 제안한다.
- 56 **BLACK TEA TIMES**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높은 민중도로 프레스의 대표 제품이 된 블랙 티 컬렉션이 완벽한 라인업을 구축했다.
- 57 **ETERNAL FEMININE** 20세기 패션사를 새로 쓴 사넬의 전설을 담은, 시대를 초월한 향수의 새로운 표현, 'N5 오 프리미에르'.



Style 조선일보

Issue.115 October 2014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에디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권유진 yjkwon@chosun.com
 이메일 | yejin_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숙 okida@chosun.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조통일 ci@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사법실 그래픽스
 인쇄 | 타라타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805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혁신과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FENDI.COM

FENDI



주요 이미지: 박 주

Jewel SWEET PINK

더 섬세하고 고급스러우며 특별한 핑크 골드로 완성한 주얼리 컬렉션.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로즈 골드 소재로 부채 모티브를 완성한 디바 컬렉션 네크리스 4백만원대 **불가리**, 핑크빛 시루리 골드로 정자리를 표현한 네크리스 5백만원대, 로즈 골드로 시련스러운 리본을 표현한 우라리 네크리스 2백40만원대, 장지리 모티브 링 9백만원대 모두 **타사기**. 티아라 모티브의 조세핀 티아라 링 1천만원대, X자 링크가 돋보이는 프리미에 라양 핑크 골드 브러시슬릿 9백만원대 모두 **쇼메**. 고대 그리스 신화에 서 영감을 받은 무사제(MVSA) 컬렉션 브러시슬릿 1천만원대 **불가리**, 에디터 **베미진**

Fashion FASHION FILM RUSH

눈과 귀를 열면 빠져드는, 지금 주목해야 할 네 편의 패션 영상. 먼저 에르메네집도 재-www.rose-reborn.com)와 박찬욱 감독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단편영화 <A Rose, Reborn>의 트레일러 영상이 미니 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총 3편으로 이루어진 에피소드에는 에르메네집도 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지닌 세대'에 대한 고찰을 담았으며, 장지린 이탈리아 수트가 빛어낸 클래식한 장면이 인상적이다. 여성 감독과 합작해 매 시즌 필름을 선보여온 미우미우(www.miumiu.com) 우연스 테일 시리즈가 벌써 여덟 번째를 맞았다.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 미란다 줄리아가 메가폰을 잡은 10분짜리 쇼트 필름, <Somebody>는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하며 인간관계의 소통을 다루었다. 빈티지한 영상과 오묘한 조화를 이루는 미우미우의 2014 F/W 컬렉션을 찾는 재미도 쏠쏠하다. 구찌는 새로운 재킷 백 컬렉션을 위한 디지털 캠페인을 제작했다. 누군가의 표적이 되는 케이트 모스의 모습은 파파리치에게 쫓겨 다닌 재클린 케네디를 떠올리게 충분하다. 구찌의 겨울 컬렉션과 대체로운 재킷 스포츠 백의 화려한 스타일링은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GB8-NRP7m0>)를 통해 1분짜리 풀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루이비통은 매출을 상충하는 모노그램을 기념하기 위해 '아이론과 아이폰 재해석자'라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건축가 프랭크 게리, 칼 라거펠트, 크리스찬 루부탱 등 창의적인 아이콘에게 모노그램을 활용한 가방을 제작하도록 의뢰했다. 결과는? 콜라시가 반복되는 임팩트 강한 영상에는 그들의 특별한 감성과 대응함이 녹아든 유익무이한 모노그램 한정판 에디션이 녹아들어 있다. 루이비통 공식 홈페이지를 비롯해 인스타그램(@louisvuitton)에서 확인하라. 에디터 **이예진**



Beauty SOAP STAGE

싸고 민란한 게 비누였던 것도 옛날. 물에 젖을까 망가질까 닦는 게 아까울 정도로 욕실에서 가장 고이 모시는 존재가 되어버린 고급 비누의 전성시대다. (기운데 유튜브 시계 방향으로) 천연 원료로 사들인 프레스의 첫 작품이 비누라는 사실을 이는지, **프레쉬 오일 슝**(250g 2만2천원은 문지르고, 반죽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치는 트리플 밀 가공법으로 만들어 입자가 곱고 견고하다. 보습에 좋은 시아버터와 비타민 C·E 성분 이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준다. 벨벳비누를 연상시키는 투박한 직사각형 올리브 그린 컬러 비누는 **랑팔라부르 사봉 드 미르세이유**(600g 2만5천원), 1백8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프랑스 전통 천연 수제 비누 브랜드로, 인공색소나 향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아 극건성 피부나 민감성, 알레르기 피부에 순하게 작용한다. 씻어내는 것을 넘어 부스팅 기능을 더한 **클레르보 보베 시야티프 비누**(100g 13만원)에는 1개를 만드는 데 4개월이 소요될 만큼 심혈을 기울여 완성했다. 맨얼굴의 피어나 노폐물은 물론 메이크업까지 꼼꼼하게 씻어내 이중 세안이 필요하다. 은은한 잔잔함이 도는 직사각형의 비누는 **샤넬 코코 마드모아젤 비누**(150ml 3만7천원)이다. 아자유가 주성분인 식물성 입자가 부드럽고 풍부한 거품을 만들어, 물이 닿어도 쉽게 닦지 않도록 지극히 최소화했다. 케이스에 담긴 고급스러운 스킨을 포장기 필요하다면 **팬탈리온스 블랑하임 부케 소프**(100gX3, 9만원)를 추천한다. 성세하게 유익한 로고와 패턴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남자가 함께 써도 좋은 클래식한 시트러스 향과 천연 보습제로 불리는 글리세린, 아몬드 오일 등을 풍부하게 함유했다. **불가리 울 아이 인디안 가넷 슝**(150g 4만원)은 향수에서 비롯한 만큼 싱그러움 플로럴 향을 강조했다. 타고난 살 냄새를 어필하고 싶다면 이비누가 제격. 에디터 **이예진**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Living 웰빙 탄산수, 일상을 파고들다

요즘 탄산수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사실 수년 전만 해도 국내에서는 물처럼 편안하게 마시지도 못하고, 음료수처럼 맛있게 들이치지도 못하는 애매한 대상이 바로 탄산수였다. 그런데 여전히 호불호가 갈리기는 해도 맛있는 생수보다 톡 쏘는 탄산기스가 든 물, 즉 스파클링 워터를 선호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가 두드러진다. 아무래도 음식 문화가 대체로 워지고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인 듯하다. 탄산쪽은 특유의 청량감이 매력인 스파클링 워터를 그냥 생수처럼 마시기도 하지만 믹서로 곱게 간 과일과 섞어 천연 에이드를 만드는 식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살림이 함유된 탄산음료보다는 맛을 살짝 찡찡한 탄산수를 마시는 편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도 인기에 한몫을 한다. 이런 배경 속에서 새로운 탄산수 브랜드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코카콜라는 1백50년 전통을 자랑한다는 캐나다산 스파클링 워터 '씨그램'을 선보였다. 깔끔한 '씨그램 플레인'을 비롯해 '씨그램 라임', '씨그램 레몬' 등 3종이 있다. 초장탄산수, 트레비, 페리에, 디아망 등 다양한 토종과 수입 브랜드들이 경쟁하는 구도도 코카콜라까지 가세한 것이다. 긴간이 아티스트나 타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통해 보틀에 새 옷을 입혀 소비자를 유혹하는 시도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다. 최근 이탈리아 천연 탄산수 브랜드 산펠레그리노는 모터 사이클 브랜드 두카티와 함께 스페셜 에디션을 내놓기도 했다. 에디터 **고성현**



Focus <스튜디오 지브리 입체조형전>

미야자키 하이오만 감독이 아우르는 범지구적인 인기를 누린 애니메이션 감독도 흔치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이웃집 토토로>를 비롯해 <하늘의 왕자>는 상,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모노노케 히메>, <붉은 돼지> 등 많은 이들의 마음속을 흔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는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마치 실제 모습처럼 전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9월 3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서울 용산역 현대 이이파크를 6층 특별관에서 개최되는 <스튜디오 지브리 입체조형전>이다. 이 전시에서는 각각의 애니메이션 작품의 실제 장면과 캐릭터를 빛어낸 조형물을 다수 볼 수 있다. 정교한 솜씨로 제작한 완성도 높은 입체 조형물 속을 돌아다니다 보면 애니메이션의 세계에 빨려 들어간 듯한 느낌이 살짝 든다. 이제 일흔을 훌쩍 넘긴 미야자키 하이오 감독이 1985년 설립한 스튜디오 지브리의 명장을 좋아하거나 이야기 있는 가족이라면 한 번쯤 관람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듯하다. 스튜디오 지브리의 홍사노 코지 대표 이사는 "비록 비현실 세계이긴 하지만 이번 전시를 통해 자신만의 지브리의 세계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홈페이지 www.2014gniblexhibition.com 문의 1688-6875 에디터 **고성현**



PRADA

+822 3443 2323 prada.com

베스트를 레이어드한 듯한 디자인으로 보온성을 높인 울 장갑 카디건 38만원 **잭 니클라우스**.



편안한 착용감과 보온성을 갖춘 모 & 폴리 혼방 장갑 9만원 **잭 니클라우스**.



골프화 걸임상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스파이크리스 슈즈 19만원 **잭 니클라우스**.



골퍼의 모습을 새겨 워트를 준 커피스 링크 2만원 **폴 스미스**.



스카프는 함께 매개미, 스카프는 함께 매개미, 포인팅 마크 바이 마크 게임스 by 사필로 a.



동양인의 발에 맞게 디자인해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2방향 골프화 22만원 **미즈노**.

for him Selection

봄여름 산뜻하고 컬러풀한 골프 룩을 즐겼다면, 이번 시즌엔 가을에 걸맞은 고급스럽고 깊은 컬러감의 골프 웨어에 주목할 것. *photographed by hong seung eun*



골프장의 잔디를 연상시키는 녹색 사침이 매력적인 씨마스터 아쿠아테라 골프 마스터 코-엑시얼 워치 6백만엔대 **오메가**.



스포츠한 고급 디자인의 선글라스 가격 미정 마크 바이 마크 게임스 by 사필로 a.



나일론 소재의 옥타곤 프린트 파우치 37만원 **프라다**.



세계적인 디자인과 성능을 자랑하는 2024년 가을엔 백 23만원 **타이리스트**.

사필로 a. 유관장 어시스트 이베링 에디터 권유진

높은 비거리 성능을 갖춘 골프공 8만엔대 **혼마**.



근사한 핏과 캐주얼 룩에 어울리는 보편 편한, 편안한 착용감 **타이리스트**.



산뜻한 그린 컬러로 포인트를 준 스포츠 캐디 백, 9.5인치, 36만원 **아마하 골프**.



통풍구가 있는 골프화 보편 포켓으로 실용성을 더한 JFX 스타일 캐디 백, 46X26cm, 14만원 **미즈노**.

잭 니클라우스 02-3677-8831
폴 스미스 02-3447-0278
미즈노 02-6360-0263
사필로 02-2017-3765
타이리스트 02-3014-3800
프라다 02-3218-5331
혼마 02-3677-7716
아마하 골프 02-582-5787
오메가 02-511-5797

Tod's Korea Inc. 02-3448 8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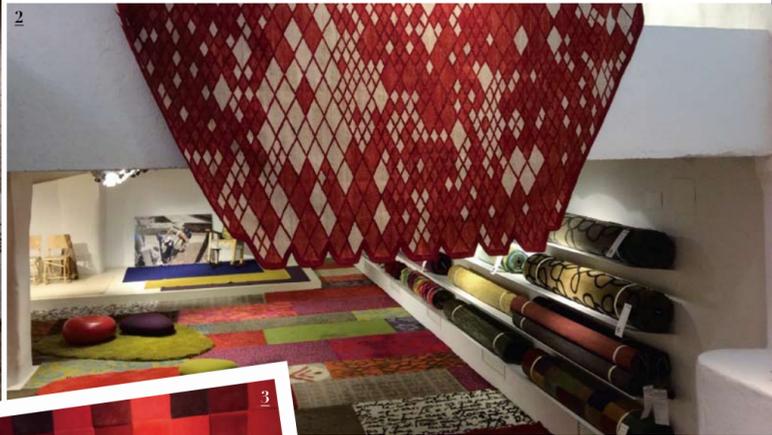
TODS.COM



Nani Marquina

The Women Who Inspire Us *interview 04*

가스통 바슐라르의 저서 <꿈꿀 권리>를 보면 스페인이 낳은 위대한 예술가 에두아르도 칠리다는 쇠의 존재를 꿰뚫고 싶어 끌과 나무망치가 아닌 쇠파를 집어 들었다고 한다. 마치 대장장이처럼, 바르셀로나 출신의 디자이너 나니 마르키나는 양탄자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장인들과 함께 실을 엮고 베를 짜기를 배웠다. 그녀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순한 깔개를 거의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데는 그런 섬세하면서도 저돌적일 정도로 강한 열정이 뒷받침됐을 것이다. 가녀린 체구로 작은 브랜드를 이끌며 지구촌을 누비는 나니 마르키나의 '무용담'을 그녀의 고향을 찾아가 들어봤다.



21세기 들어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두각을 나타내는 창조 도시로 손꼽히는 바르셀로나. 스페인에서 가장 부유한 카탈루냐 지방의 주도인 이 도시는 잘 알려졌 다시피 그 유명한 19세기의 천재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활약했던 무대다. 카사밀라, 카사바트요 같은 건축 작품이 황홀하게 늘어서 있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길거리 의 벤치와 가로등까지도 가우디의 손길이 닿았다는 그라시아 거리(Passeig de Gracia), 화려하게 펼쳐진 이 예술적인 대로에서 발걸음을 살짝 옮기면 은근히 눈길을 끄는 풍요로운 공간을 발견할 수 있다. 유리창 안, 현대 조각의 거장으로 불리는 스페인 조각가이자 판화가인 에두아르도 칠리다의 이름이 적힌 직사각형 팻말이 서 있는데, 이것만 보자면 언뜻 갤러리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못 이색적인 인테리어가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칠리다 팻말 뒤의 벽을 우아하게 장식한 아름다운 미색 양탄자를 비롯해 형형색색의 카펫이 공간을 온통 채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현대미술 작품을 연상케 하듯 자못 '컨템퍼러리' 색채가 묻어난다. 이곳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바르셀로나 출신 러그(rug) 디자이너 나니 마르키나(Nani Marquina)의 쇼룸이다.



양탄자를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킨 혁신 브랜드

부모한테 물려받은,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딴 양탄자 브랜드 나니 마르키나는 올해로 탄생한 지 27년 된 가족 경영 디자인 회사다.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오라만큼은 카탈로그만 슬쩍 들춰봐도 남부럽지 않은 위용을 자랑한다. 패브릭의 미학을 살리며 칠리다의 추상적인 작업을 평면에 아름답게 펼쳐놓은 작품을 위시해 얼마 전 한국에서도 성황리에 전시회를 개최한 바르셀로나의 스타 크리에이터 허비에르 마리스칼,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가구 디자이너 토르트 본체 같은 내로라 하는 작가들과 손잡고 빛아낸 다채로운 디자인의 러그들, 조약돌을 줄지어놓은 듯한 담백한 모양새, 탐스러운 꽃잎을 흩뿌려놓은 듯한 폭신한 느낌, 아프리카나 인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실용적인 분위기. 게다가 보온성과 통기성이 우수한 뉴질랜드 울, 면, 황마 같은 천연 소재와 솜씨 좋은 장인들의 수공예 기술이 만나 궁극의 조화를 이룬 질감과 색감. 이 정도면 예술 작품이라고 해도 무방할 듯하다. 그렇지만 선풍 발기 황송할 정도로 부담스럽지는 않다. 바르셀로나 특유의 헛살처럼 포근하고 친근하게 다가선다. 세련된 넘치지만 대부분 숙련된 장인들이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서인지 차갑고 기계적

인 느낌은 묻어나지 않는다. 이 브랜드에서 제작하는 명품 양탄자의 8할가량이 해외로 수출된다는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커피를 훌쩍이며 미케팅 담당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약속 시간보다 살짝 늦게 도착한 나니가 환한 미소를 머금은 채 다가왔다. 그녀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건 3년 전쯤, 밀라노 국제 가구박람회에서였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디자이너 듀오 로랑 & 에르완 부를렉 형제의 작품이 나니 마르키나 부스에 전시된 걸 보고는 단번에 반했다. 보풀 없이 평평하게 짜는 '킬림(Kilim)'이란 기법으로 하나를 만드는데 꼬박 일주일이 걸린다는 마름모꼴 무늬의 양탄자 '로산주(Losanges, 마름모꼴이라는 뜻의 프랑스어)'라는 작품이었다.

다국적 디자이너들과의 콜라베이션이 빚어낸 풍부함

그리고 보니 13가지 색상의 조합이 강렬한 원작의 뒤를 이어 블랙 & 화이트, 레드 계열 등으로 다양하게 선보인 로산주의 후속 버전들이 나니 마르키나의 바르셀로나 쇼룸에 전시돼 있었다. 그녀는 파키스탄의 장인들이 직접 이 근사한 마름모꼴을 엮어내기 위해 한 울 한 울 곁들이는 모습을 비디오로 보여주며 설명했다. "원래 부를렉 형제는 유명한 스위스 가구업체에 이 디자인을 먼저 가져갔어요. 그런데 우리 브랜드가 그들이 원하는 느낌의 디자인을 더 잘 구현해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신기한 건 우리가 서로에게 거의 동시에 연락을 취했다는 사실이에요." 운명적인 파트너십은 그렇게 생성됐고,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으며, 현재 나니 마르키나와 부를렉 듀오는 아프가니스탄을 무대로 또 다른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나니 마르키나는 자신도 다수의 히트작을 낳은 스타 디자이너이지만 이처럼 젊은 인재나 탁월한 대가들과의 실용적인 협업으로도 유명하다. 아리아다나 미겔이란 디자이너와 함께 자전거 페타이어를 재활용해 만들어낸 업사이클링 양탄자 '비시클레타(Bicicleta, 2004)나 예쁘장한 꽃잎 모양의 직물 조각을 일일이 손으로 엮어냈다는 '리틀 필드 오브 플라워스(Little Field of Flowers, 토르트 본체의 2006년 디자인), 빙하 위에 위태롭게 선 백곰으로 지구온난화를 경고하는 '글로벌 워밍(Global Warming, 2008)' 같은 작품을 예로 들 수 있다. "토르트 본체는 나니 마르키나라는 브랜드와 인연을 맺은 최초의 해외 스타 디자이너였는데, 꽃을 소재로 한 작업으로 알려졌지요. 우리는 꽃이 러그에 핀가 편



찮은 작업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꽃무늬를 그려 넣는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요." 원래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다는 나니는 어쩌다 이처럼 탁자나 그릇, 혹은 커피 포트가 아닌 양탄자의 차별화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을까?

디자인 선구자의 딸, 바르셀로나의 새 물결에 동참하다

그녀의 디자인 뿌리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아버지 라파엘 마르키나에게 있다. 건축가이자 조각가, 디자이너였던 그는 스페인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생활의 디자인'으로 기억되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어린 시절 오일을 따르다가 항상 흘러던 기억에 착안해 '흡림 방지' 기능을 장착한 투명한 양념통을 디자인해 유명세를 탔는데, 이 제품은 모조품이 무척이나 많은 용기이기도 하다. 나니에게는 언제나 디자인의 가치를 각인시키고 이끌어준 아버지였다. 21세란 어린 나이에 결혼한 나니는 남편을 군대에 보내고당시는 스페인도 병역이 의무였던 시대였다. 일과 디자인 공부, 살림을 동시에 해나간 가녀린 체구의 '여장부'였다. 잠시 패턴 회사에서 근무하기도 했지만 다른 이의 밑에서 일하는 걸 견디지를 못했고, 아버지 소유의 인테리어 상점을 운영하다가 1980년대 들어서는 양탄자를 디자인하게 된다. "그 시절, 저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유럽 문화의 일부인 양탄자는 1980년대에 들어서는 거의 죽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스페인에는 바깥세상에서 온갖 새 조류가 물밀듯 유입되고 있었고, 디자인도 마찬가지였죠. 이케아의 열풍으로 값싸게다다란 여타인 디자인을 생활 속에 받아들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카펫만큼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말대로 바르셀로나는 전환의 시기를 겪고 있었다. 1936년 피비린 내 나는 스페인 내전이 발발한 이래 길게 지속됐던 프랑코 독재 정권이 막을 내린 뒤였기 때문이다. 19세기 모더니즘의 꽃을 피웠던 찬란한 도시의 영광을 기억하며 세계적인 도시로 다시 발돋움하려는 바르셀로나의 크리에이터들을 가리켜 '80년 세대'라고도 부른다. 나니는 디자이너가 만드는 컨템퍼러리 양탄자라는 개념으로 그 변화에 동참한 것이다.

상글람의 고군분투, 위기를 벗어나고자 인도로 향하다

그런데 인생은 만만치 않았다. 당시 디자인계의 동료였던 허비에르 마리스칼을 위시한 실력자들과 작업을 해나갔고, 초반에는 나름 주목도 받았지만 사업으로서의 수익이 영 나지 않았다. 따지고 보면 그녀는 30대의 젊은 디자이너였지만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다. 디자인이 아무리 괜찮아도 기계로 짠 제품으로는 품질에 한계가 있었고, 따라서 가격 정책도 제대로 펴지 못했다. "정말이지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뒷받침이 되질 않아 우리는 1990년대 초에 이르자 결국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어요. 따지고 보면 디자인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제품을 보여주고, 개념을 제시하고, 이해시키는 방식 등 모든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계기였죠." 게다가 그녀는 10대의 딸을 홀로 키우는 '싱글맘'이었다. 회사를 살리려고 고군분투하면서 민감한 나이대의 딸까지 건사하려니 오히려 '이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었다'는 낙관적인(?) 생각마저 들었다고 회상하면서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정말로 갑자기 운이 트이기 시작했다. 회사가 기울었던 당시 호텔 프로젝트를 하나 맡게 됐는데, 기계로 짠 균일한 선이 아니라 불규칙한 형태와 질감의 양탄자가 필요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장인들을 찾아 나섰고, 그러다 보니 결국 인도로 향하게 됐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인도의 작은 마을 보팔로 간 그녀는 베텔로 카펫을 짜고 실을 엮는 베테랑들을 마주했다. 사막의 오아시스나 다름 없었다. 이렇게 해서 독창



1 스페인 바스크 출신의 현대 미술 가장 에두아르도 칠리다의 손길을 입힌 자에 근사하게 옮긴 '칠리다 컬렉션' Figura humana 1948라는 작품 (2012). 2, 3 바르셀로나의 나니 마르키나 쇼룸. 위에 걸려 있는 작품(2번과 3번 밑에 걸린 작품(3번)은 둘 다 프랑스의 부를렉 형제가 디자인한 명작 로산주의 다른 버전들. 4 벨트 소재의 꽃잎들이 인상적인 네덜란드 디자이너 토르트 본체의 '리틀 필드 오브 플라워스'. 현지 '사뽀나'로 불리고 가스통 바슐라르의 소설의 시 구절을 따올리게 한다. 5 울, 비단, 뽀기 등 소재의 특성을 실려 천연 염색과 친환경적 공정을 가진 '내추럴(Natural)' 컬렉션(2013). 크기와 색상의 선택 폭이 넓으며, 청소를 사용하려면 디오로 관리 방법도 간단한 편이라고. 6 2002년 나니 마르키나라는 브랜드를 널리 알린 '플라잉 카펫'. 신진 디자이너 듀오의 데뷔작이었다. 7 나니 마르키나 본인이 인도의 문양을 본따 제작한 '랑굴리'(2007). 8 런던에서 활약하는 2인조 스타 디자이너 도시 라파엘이 올해 선보인 '라바리 컬렉션'. 자료 제공 nanimarquina.com, www.wellz.co.kr

성을 갖춘 현대적인 디자인에 장인의 전통 기술을 엮은 작품이 탄생하자 브랜드 가치가 달라졌고, 나니는 제작 기업을 인도로 옮기는 결단을 내렸다.

날개를 단 양탄자의 스토리텔링, 어디까지 지평을 넓힐까?

극적으로 희생한 나니 마르키나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2002년 선보인 '플라잉 카펫(Flying Carpet)'이라는 프로젝트였다. 살짝 굽어진 언덕에 어깨를 기대거나 잔디밭에 누운 듯한 느낌을 주는 이 작품은 신선한 매력으로 여겨졌다. 이 신개념 양탄자는 디자인상을 휩쓸며 나니 마르키나라는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각인시키는 출발점이 됐다. 이를 디자인한 신진 디자이너 아나 미르와 에밀리 파드로스 듀오도 일약 스타로 떠오른 건 물론이다. "플라잉 카펫은 그들의 데뷔작이었어요. 전시회 후원을 부탁하러 찾아왔는데, 잠재성을 발견하고는 아예 일을 해보자고 제안했죠." 연타석 흥분까지 터졌다. 같은 해 나니 자신이 디자인한 '토피시모(Topissimo)'가 쓸쓸한 인가물이에 성공한 것이다. 물방울 무늬에서 영감을 얻은 몽글몽글한 동그라미들이 독특한 질감과 매력적인 색조를 형성한 이 작품은 그녀를 스타로 만들어줬다. 그로부터 상승 궤도에 접어든 나니 마르키나는 이제 가구처럼 '컬렉션'을 내놓는 카펫업계의 명품 브랜드로서 지위를 누리고 있다. 뉴욕에서 쇼룸을 선보였고, 전 세계 45개국에 판로를 구축하면서 글로벌 확장도 순조롭게 전개해나가고 있다(현재 한국에서는 멀티 브랜드 가구숍 웰즈(www.wellz.co.kr)가 판매 창구다). 나니의 행보 중에는 인도도 향한 발걸음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 선물임을 기억하며 펼쳐나간 다양한 시도가 흥미롭다. 힌두교 행사인 디왈리(Diwali) 축제에 갔다가 포착한 인디언 문양을 바탕으로 '랑굴리(Rangoli, 2007)라는 매혹적인 원형 양탄자를 만들기도 하고, 율해에는 영국 디자이너 듀오인 도시 라파엘과 손잡고 '라바리(Rabari) 컬렉션'을 내놓기도 했다. 인도 쿠치 지역의 소수민족인 라바리족 여성들과 함께 섬세한 전통 기술을 구현했다고 한다. 또 나니는 자신이 처음 방문했던 보팔 마을에 학교를 짓기도 했는데, 이곳에서 개최한 그림 공모전의 우승작을 상품으로 선보이기도 했다. '칼라(Kala, 2008)라는 이름의 이 작품이 한 점 팔릴 때마다 1백50유로를 현지 교육 재단에 기부한다. 1952년생인 그녀는 이제 환갑을 넘어서는 노장 크리에이터가 됐고, 경영권도 딸과 사위에게 넘겼다. 하지만 지평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려는 열망은 여전하고, 심지어 더 바빠졌다. 바르셀로나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디자이너와 건축가를 후원하는 명망 높은 사설 협회 FAD의 의장까지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디자이너로서의 소망은 남미 등 다른 지역의 전통 기법을 습득해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풀어내는 것이라면서, 현재 세계적인 디자이너 론 아라드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귀뻐했다. "어려운 수공 기술이지만 도전 의욕을 불러일으킬 만큼 흥미롭기도 해요." 몸집도 깡마른 체구에서 어떻게 그처럼 끝없이 힘이 샘솟는지 신기하다고 하고, 부럽기도 하지만 확실한 건 점심 식사를 챙길 시간도 없이 FAD 회의에 가야 한다며 희곡희곡한 머리를 휘날리면서 사라진 그녀는 '궁정의 에너지'를 남기고 갔다는 사실이다. **스타 에디터 고성연**(바르셀로나 현지 취재)

Black *mystery*

눈을 땡 수 없는 강렬한 오라와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여성 블랙 워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기운에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부채꼴 리틀레 워치** 1946년 탄생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부채꼴의 대표 워치. 건축감에서 영감을 받은 직사각형 케이스에 고도로 모티프를 성세하게 세공해 여성스러우면서 모던한 이미지를 지어낸다. 더불어 스트랩 교체 가능해 분유가 때 따라 다른 룩을 연출할 수 있다. 3백만원대. 문의 02-772-3508

워블로 박빙 골드 다이아몬드 워치 클래식하면서도 화려한 18K 골드 케이스에 총 0.877캐럿, 1백26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이 돋보이는 라퍼 스트랩 워치. 대담한 케이스 디자인과 내구성 뛰어난 천연 고무 스트랩의 조화가 피우물이다. 3천만원대. 문의 02-540-1356

사철 화인즈워리의 마드모아젤 프라베 워치 블랙 레커 다이얼에 새겨진 섬세하고 아름다운 동백꽃 모티프가 매력적인 블랙 사틴 스트랩 워치.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60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동백꽃 모티프 위에는 5개의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와 5개의 옐로 사파이어를 세팅해 고귀한 아름다움을 더욱 극대화했다. 7백만원대. 문의 02-3442-0962

에기 르플로르 리베르스 스퀘드라 레이디 듀에트 워치 1개의 무브먼트로 2개의 시계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클래식 여성 워치. 케이스를 열으면 들어 튀진 수 있는데, 한쪽 면은 블랙, 반대쪽 면은 화이트 다이얼로 각기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별다른 기구 없이 간편하고 손쉽게 스트랩을 교체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시계의 매력이다. 3천3백만원대. 문의 02-756-0300

블랑팡 울트라 슬림 워치 블랙 & 화이트로 대비를 이루는 다이아몬드 세팅 다이얼과 베젤의 두 줄 다이아몬드 장식이 인상적인 울트라 슬림 워치. 독특한 인레스 디자인이 화려하고, 경질 사틴 스트랩이 도시적인 매력을 강조한다. 또 시계 뒷면을 사파이어 크리스털로 제작해 정교한 오토메틱 무브먼트를 확인할 수 있다. 5천4백만원대. 문의 02-3467-8426

블가리 세르펜티 스피카 투보가스 워치 풍요, 지배, 불멸과 장수를 상징하는 뱀에게 영감을 받은 세르펜티 컬렉션과 밀 이식 패턴의 스피카 컬렉션이 조화를 이룬 화려하고 볼드한 디자인의 핑크 골드 워치. 손목에 두 번 감기는 유연한 브레이슬릿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장식을 화려함을 더했다. 3천만원대. 문의 02-2056-0172

몽블랑 스타 레이디 크로노그래프 워치 크로노그래프와 날짜 디스플레이 기능이 탑재된 여성 워치로, 9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블루 블랙 자개 다이얼과 매력적인 사틴 스트랩이 우아하고 럭셔리하다. 3백37만원. 문의 02-2118-6053 에디터 배미진, 권유진



GIVENCHY



(왼쪽부터) 지중해 남부 이란베스크 건축양식에서 영감을 받은 인피르시오 컬렉션 블랙 오픈스 링 1천만원대 **블라키티**,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건축적인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파리 누벨라드 컬렉션 링, 2천1백만원대 **카르띠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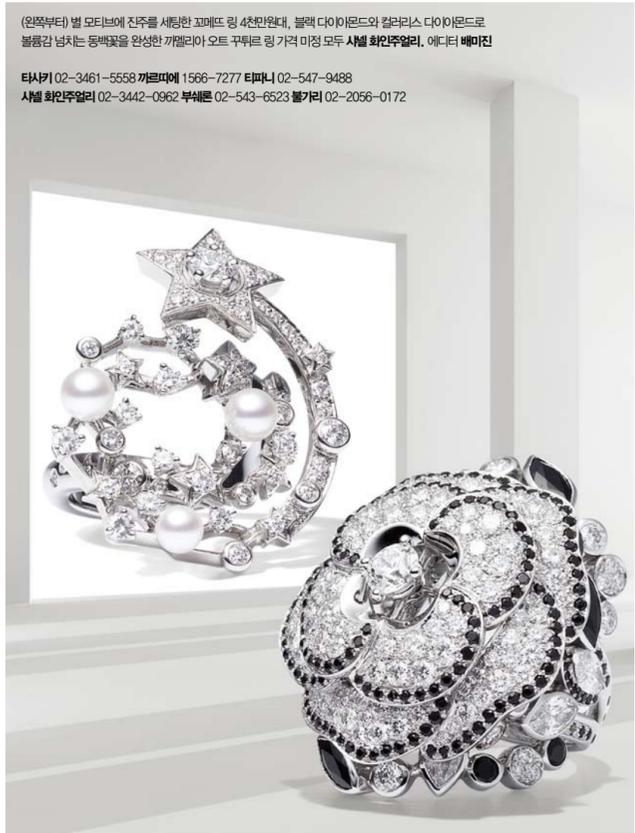
(왼쪽부터) 티파니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TIFFANY T 컬렉션 스틸링 샹버 재질의 링은 가격 미정, 옐로 골드 링은 1백만원대 모두 **티파니**.

Solid beauty

여성의 손을 빛나게 하는 반지는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기하학적인 건축물이다. 대담하고 인상적인, 구조적 디자인이 매력적인 주얼리 브랜드의 볼드 링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11mm 크기의 최상급 남양 흑접 진주와 남양 백접 진주를 다채롭게 이루도록 배치한 밸런스 유나이티드 2천2백만원대 **타사키**, 브랜드 창립 1백20주년을 기념해 보다 입체적으로 완성한 쿼트로 레디언트 에디션 링, 각 1천만원대 모두 **부쉐론**.



(왼쪽부터) 벨 모티브에 진주를 세팅한 꼬메드 링 4천만원대, 블랙 다이아몬드와 칼라리스 다이아몬드로 불꽃감 넘치는 동백꽃을 완성한 캐롤리나 오토 꾸투르 링 가격 미정 모두 **사펠 화인주얼리**, 에디터 베이진

타사키 02-3461-5558 **카르띠에** 1566-7277 **티파니** 02-547-9488
사펠 화인주얼리 02-3442-0962 **부쉐론** 02-543-6523 **블라키티** 02-2056-0172



moncler.com

iconic 꾸준히 사랑받아온, 브랜드를 대표하는 시그너처 주얼리.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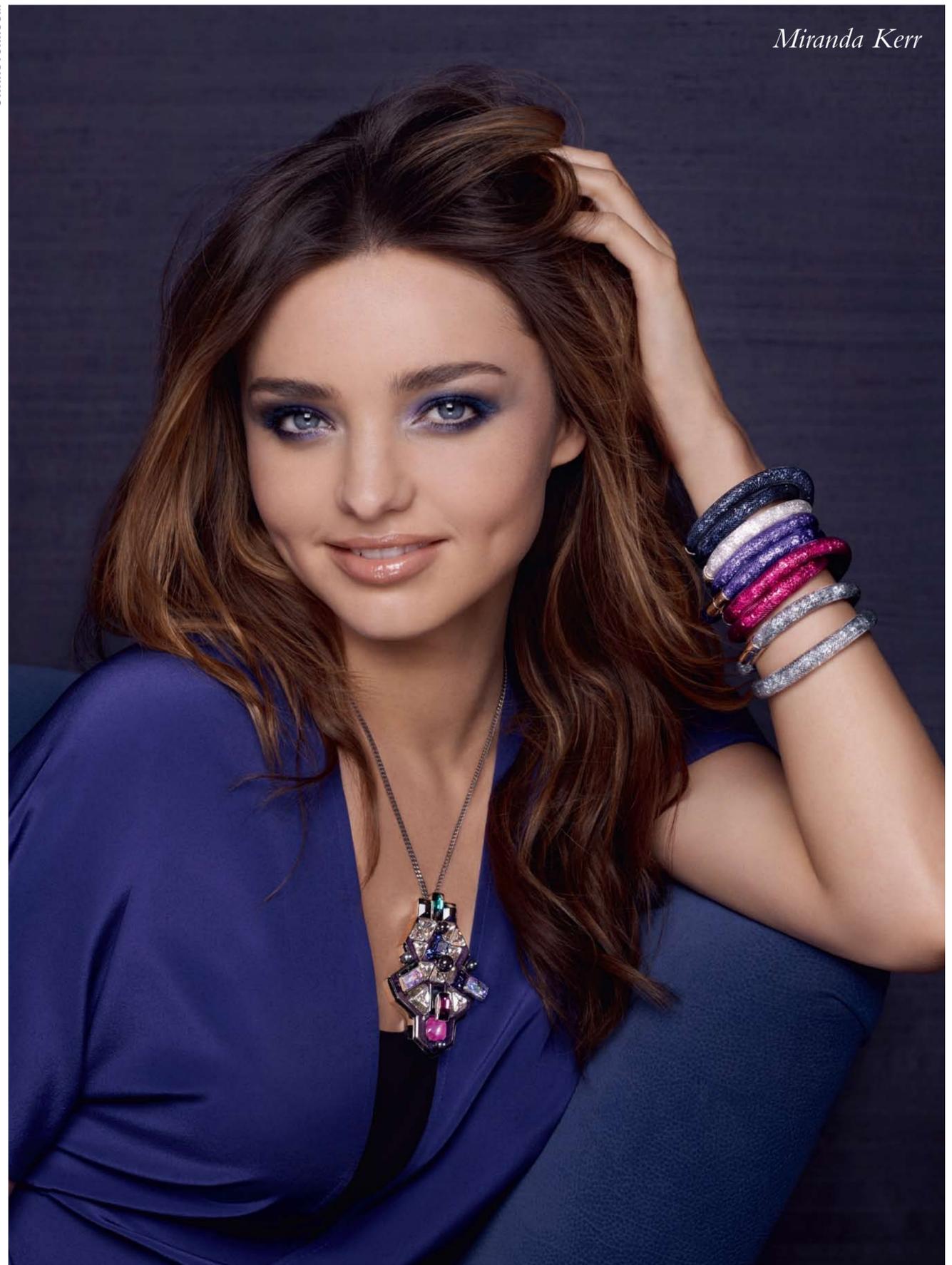
Essentials

(상단 대리석 위, 가운데부터 시계 방향) 세라믹 소재를 사용해 도사적이며 모던한 이미지를 선사하는 울트라 화이트 다이아몬드 링 5백만원대 **사벨 화인주얼리**, 18K 옐로 골드에 최상급 이모아 진주를 알렐로 세팅한 우아한 스타일의 벨런스 에라 링 2백30만원대 **타사키**, 팔찌 앞면에 로마숫자를 다룬 디자인이 심플하면서도 유니크한 스텔링 실버 아틀라스 밴글 1백만원대 **타파니**, (오른쪽 아래 블랙 워치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사철을 상징하는 재인 브레이슬릿을 손목에 세 번 감아 연출하면 감각적인 룩을 완성할 수 있는 프리미에르 트리를 리버 워치 6백만원대 **사벨 화인주얼리**, 타파니 뉴욕 분사 외벽에 실려진 청동 시계의 로마숫자에서 모티브를 얻은 로즈 골드 아틀라스 오픈 밴글 1천만원대 **타파니**, 나선 모티브의 브랜드의 더블 로고를 결합한 화이트 골드 밴드 태두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비,제로원 4-밴드 링 1천만원대, 나선 모티브 라인을 따라 다이아몬드를 피베 세팅한 핑크 골드 4-밴드 링 1천만원대 모두 **불가리**, 우정과 사랑을 의미하는 전설적인 칼렉션으로, 전용 드라이버가 있어야만 착용 가능한 러브 브레이슬릿 7백60만원대 **카르띠에**, 나선 모티브와 더블 로고를 조화를 이룬 볼드한 디자인의 비,제로원 핑크 골드 다이아몬드 펜던트 네크리스 6백만원대 **불가리**, 화이트와 블랙 골드의 조화로 브랜드 고유의 네 가지 모티브를 표현한 쿼트로 블랙 액세서리 펜던트 네크리스 1천만원대 **부쉐론**, 아름다운 뿔개꽃을 모티브로 해 모던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블랙 세라믹 가젤리아 네크리스 5백만원대 **사벨 화인주얼리**, 로마숫자를 대담한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스텔링 실버 뉴 와이드 컷프 3백만원대 **타파니**, 행운을 상징하는 원형 펜던트 디자인이 특징이며 오픈스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아름다운 드 카르띠에 펜던트 네크리스 5백10만원대 **카르띠에**, 18K 옐로 골드 바 위에 남양 흑점 진주를 세팅하고 달의 차고 이자리자음을 진주 표면에 옐로 골드로 정교하게 표현한 벨런스 이블리스 링 1천9백만원대 **타사키**, 진주 반지 오른쪽 위에 있는 반지는 로마 보드블록에서 영감을 받아 특유의 건축미와 기하학적인 구조가 돋보이는 핑크 골드 퍼넬티지 칼렉션 링 2백만원대 **불가리**, 광택한 못 모티브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승화시킨 자스트 앵 글루 링 2백30만원대 **카르띠에**, 화이트·옐로·핑크·초콜릿 골드의 서로 다른 밴드에 네 가지 모티브를 새겨 완성한 쿼트로 클래식 라지 링 6백만원대 **부쉐론**, 에디터 권유진

타사키 02-3461-5558 부쉐론 02-772-3508 카르띠에 1566-7277 타파니 02-547-9488 사벨 화인주얼리 02-3442-0962 불가리 02-2056-0172

SWAROVSKI.COM

Miranda Kerr



best Bags

계절의 변화가 반가운 것은 늘 새롭게 등장하는 신상 백 때문일지도 모른다. 디자이너의 캔버스 역할을 자처한 프린트, 모던하게 변주된 아이코닉 디자인, 추운 계절을 위한 모피 소재, 컬러 블로킹과 미니 사이즈 등등. 우리를 설레게 하는 2014 F/W 가장 열진,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고급스러운 소가죽을 부드럽게 가공한 질감과 인감을 없앤 유연한 형태, 아이코닉한 버클로 새롭게 거듭난 재키 소프트. 40X32cm, 3백44만원 구피.



사다리꼴 보다, 견고한 플랩, 존재감이 뚜렷한 버클이 매력적인 델보의 아이코닉 백, 유머러스한 문장이 특별하다. 34.5X31.5cm, 2천만원대 델보.



꽃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이번 시즌 레아디 다움 백. 양감 대비가 분명한 흑과 백이 강렬한 느낌을 준다. 23.5X20cm, 5백만원대 다움.



세탁 가능 소재의 장미와 꽃의 착안과, 스티어링 스트랩을 어시스트하여

부드러운 곡선, 카다만 지퍼, 손으로 그린 듯한 핸드 페인팅 프린트로 대변되는 블룸즈버리 백. 19X30cm, 3백10만원 바버리.



시즌마다 새로운 소재와 컬러, 사이즈를 선보이는 리키 백의 겨울 버전은 송차에 레오파드 프린트를 입힌 관능적인 디자인을 내세운다. 27X31.5cm, 3백70만원대 람프 로젠.



에피 가족의 모던한 변신, 견고한 형태와 가죽의 텍스처, 다른 컬러를 입힌 스트랩과 핸들이 세련된 면모를 보인다. 21X28cm, 3백50만원대 루이 비통.

고급스러운 악이 가죽을 가깝고 실용적으로 가공한 토트백, 전면의 장식한 플리워 패치워크가 화사하다. 22X19.5cm, 5백만원대 맨시 곤잘레스.



Salvatore Ferragamo

TIMEPIECES

FERRAGAMOTIMEPIECES.COM



페레가모 워치는 전국 유명 백화점 내 **갤러리아클락** 매장 및 공인된 판매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080 3284 1300

VEGA
STAINLESS STEEL CASE
WITH GOLD IP TREATMENT 32 OR 38 MM
BROWN MOTHER OF PEARL
OR SUNRAY GUILLOCHÉ DIAL

SWISS MADE

Color Blocking

두 가지 이상 컬러를 조합한 컬러 블로킹은 베이식한 디자인에 적당한 경쾌함을 더한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커다란 앞가방과 가방 양 사이드가 파치는 디자인이 독특한 소가죽 소재 벨트 백, 23.5X31cm, 3백만원대 셀렌느, 미니감한 버클 장식과 세련된 컬러 블로킹이 돋보이는 소가죽 토트백, 27X26cm, 4백만원대 프리다, 베이직 컬러 스웨이드에 모사티와 한줄은 블랙 송이자가죽으로 차려낸 소재와 컬러 대비를 강조한 아미조나 백, 28.5X23cm, 3백80만원 로아베, 레드, 핑크, 그린 등 7가지 전신과 옆에 세 가지 이상 컬러를 조합한 락 백, 브랜드를 상징하는 스타드 장식도 있지 않았다, 17X27cm, 2백58만원 발렌시아가.



Mini Bag

미니 백의 열기는 당분간 식지 않을 전망. 커다란 겨울 아우터와 한 손에 감기는 미니 백의 대비를 즐겨볼 것.

양가죽 소재의 나뭇잎 비버 커 백, 13X20cm, 2백만원대 미우미우, 가방 전면이 아무런 장식이 없이 모사티 부분을 깎아낸 듯한 형태만을 강조한 소가죽 코너 백, 16X18.5cm, 2백만원대 발리, 장사리형에 가까운 송이자가죽 보드에 한줄 부분만 울퉁가죽을 사용해 독특한 매력을 풍긴다, 21X19cm, 1백90만원 발렌시아가.



Fur Season

추운 계절을 위한 모피 백.

핸들이나 일부부분을 트리밍하기보다는 가방 전체를 모피로 뒤덮은 스타일이 강세다.

(가운데부터 시계 방향으로) 체크 패턴을 입은 링크 소재 다-쿠브 백, 26.5X19.5, 4백13만원 토토, 블랙 보드에 링크 피복 화려하게 믹스한, 비이더웨이 백의 모피 버전, 16X23cm, 4백88만원 펜디, 목욕 튜는 프린트가 새겨진 양털 체인 백, 16X26cm, 가격 미정 사텔, 에디터 이예진



DISCOVER THE NEW AUTUMN COLLECTION



MY STORY, MY DESIGN
Mystic Floral Openwork charm – as unique as you are.
Express your story and create your design at pandora.net
PANDORA. Founded in Denmark in 1982.

PANDORA
UNFORGETTABLE MOMENTS

비버리 02-3485-6536 디올 02-513-3232 넉시 콘잡레즈 02-6905-3774 발포 로렌 02-6004-0133
구찌 1577-1921 루이 비통 02-3432-1854 멜보 02-3449-5916 미우미우 02-3218-5341 발리 02-3467-6213
발렌시아가 02-542-1937 토토 02-3438-6008 사텔 02-543-8700 펜디 02-2056-9022 셀렌느 02-3440-1547
프리다 02-3218-5331 로아베 02-6911-0790 발렌시아가 02-2015-4622

현대백화점 입구정분점 무역센터점 목동점 신촌점 천호점 대구점 롯데백화점 분점 잠실점 스타시티점 노원점 수원점 평촌점 대구점 울산점 광주점 부산분점 센텀시티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영등포점 광주점 센텀시티점
갤러리아 타임월드점 AK PLAZA 수원점 분당점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신라면세점 서울점 롯데면세점 소공점 코엑스점 월드점 인천공항점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JDC면세점
한국 공식 수입원인 (주)스타릭스에서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위의 매장을 책임, 관리, 운영하며, 위 매장에서 구입하신 제품에 한하여 제품 보증을 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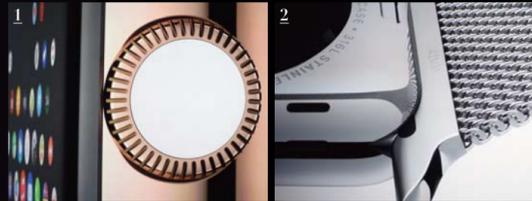
the ultimate Sophistication

미국 쿠퍼티노의 플린트 센터. 30년 전, 지금은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가 최초의 맥(Mac)을 공개한 역사적인 장소에서 전 세계 미디어를 대상으로 열린 신제품 발표 행사는 팬 사인회를 방불케 했다. 아이폰 5보다 한층 커진 아이폰 6와 6+, 지문 인식으로 결제할 수 있는 애플 페이 서비스, 궁금증을 자아낸 애플 워치까지, 각 영역의 개발 책임자들이 새로운 기기와 서비스를 소개할 때마다 탄성이 터졌고, 록 그룹 U2가 등장하자 환혼한 콘서트장이 돼버렸다. 과연 극강의 스토리텔링 기업이었다.



우리는 이미 단순함의 미학이 복잡함의 역학보다 이루기 쉽지 않은 과제임을 잘 알고 있다. 첨단 기기에서는 더욱 그렇다. 복잡다단한 논리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해내려면 본질을 꿰뚫는 '깊이'의 내공을 갖춰야 하는 것처럼 고도의 전자 제품이 뿜어내는 단순함은 '존재'의 이유를 이해하는 철학에서 나온다. 길보기로만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내세우기 위해 애써 받가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본질적이지 않은 군더더기를 애초에 차단해버린다는 논리다. 애플에 따라붙는 상징적인 수식어인 단순함(simplicity) 역시 이처럼 '본질'을 앞세우는 기업 철학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아닐까? 모든 초점을 오로지 '제품에만' 맞추는 애플 특유의 마케팅 전략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테고 말이다. 2014년 9월 9일,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게 한 애플의 신제품 발표 현장은 그런 조치일관된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이지 강렬하게 체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전 세계가 애타게 기다리던 '소문의 주인공'이 등장한 순간
 "우리도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싶지만(Wish we could say more)...", 이날 행사를 위한 미디어 초청장에 쓰여 있던 문구다. 앞 미울 만큼 세련된 애플의 신비주의 전략은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예전



1 2014년 9월 9일(현지 시간) 미국 플린트 센터에서 아이폰 6, 6 플러스와 함께 전격 공개된 애플 워치. 이 시계의 특징점은 귀차림 옆면에 달린 디지털 크라운(윤두, 홈버튼이자 줌인, 줌아웃 등 각종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2 내년 초 공식적으로 시장에 선보일 애플 워치에 대해 (미야노실업타임스FT))는 전문가를 인용해 제대로 된 디자인이라고 평가했다.

에는 스티브 잡스라는 스타 경영자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행사 때마다 시선을 한 몸에 받은 건 사실이지만, 원래 애플이 내세우는 주인공은 언제나 '제품' 그 자체였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것처럼 새삼스럽지도 않은 방식의 발표회를 둘러싼 열기는 역대급 블록버스터 영화의 개봉일에 열리는 특별 시사회를 연상케 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정보 누출에 대한 그토록 삼엄한 경계에도 어떤 제품을 발표할지 예상이 가능하더라도 말이다. 이번에도 기존에 비해 스크린을 키운 휴대전화를 발표할 것이라 예측은 무성했다. 그러나 막상 애플의 수장 팀 쿡이 무대 위로 유유히 걸어나와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를 선보인 순간, 플린트 센터에 모인 관중은 배트맨 시리즈를 감독한 영화감독 팀 버튼을 원영하듯 박수 갈채를 아끼지 않았다. 이미 짐작하고 있는데도 분위기에 동화되다니. 이런 기류에는 여전히 '바나나' 수준의 사랑을 받는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투영된 프레젠테이션의 미학이 한몫했을 듯하다. 이번에 발표한 두 모델의 특징점은 '크다는 것 이상(bigger than bigger)'이라는 광고 문구에 그대로 녹아 있다. 각각 4.7인치와 5.5인치의 고화질(레티나 HD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장착했지만 훨씬 더 얇아지고, 그래픽 성능과 처리 속도를 높이는 A8 칩을 탑재해 실속을 강화했다. 아이폰 5s는 두께가 7.6mm였는데, 아이폰 6는 6.9mm로 꽤 많이 얇아졌고, 화면이 큰 6+조차 7.1mm밖에 되지 않는다. 6+의 경우엔 '한 손의 철학을 버렸지만 모서리가 이음매 없이 둥글고 두께가 얇아 손에 쥐기 편하도록 디자인됐다. 미국 현지에서 판매 첫날부터 길게 늘어선 '행렬'은 아이폰 5s처럼 터치 ID 기능에 화면까지 큰 아이폰에 대한 갈망의 강도를 증명했다.

애플 워치, 시계의 역사에도 한 획을 그을까?

휴대전화보다 더 비싼 관심을 받은 건 사실 애플 워치였다. 내년에 공식적으로 선보일 이 제품은 자신의 심장박동을 고스란히 담아 누군가에게 보낼 수 있는, 애플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가장 퍼스널한 디바이스(the most personal device)'라고 소개됐다. 패션과 스포츠, 리미티드 에디션 등 생각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디자인을 입힌 이 시계가 정말로 누구나 손목에 차고 다니고 싶은 '일상의 개인적인 기기'로 자리매김할지는 정식으로 시장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많은 이들을 흥분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자본주의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기업이 정신의 역할을 강조한 경제학자 요제프 슐메터가 설파한 '창조적 파괴'의 대명사인 애플이 시도한 새로운 카테고리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교함을 바탕으로 하며, 실용적인 단순함을 추구하는 DNA는 여전했다. 특히 홈버튼이자 줌인, 줌아웃 등 각종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시계의 용두(크라운)에 맡겨 아날로그 감성을 자아내면서 사용자의 편리함을 꾀한 점은 역시 '애플답다'는 찬사를 받았다. 가장 직관적으로 내비게이터 역할을 해내는 '디지털 크라운'의 탄생인 셈이다. "단순함이란 궁극의 정교함이다(Simplicity is the ultimate sophistication)"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언을 계승해온 21세기 최고의 혁신 브랜드다운 행보가 패션과 디지털을 융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영역에서도 의미 깊게 이어질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애디터 **고성연**(미국 쿠퍼티노 현지 취재)



“17년 후에도, 나는 변함없이 내일을 디자인할 것이다.”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

Enjoy Ballantine's responsibly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율을 높입니다.



Casual Suit_Dsquared2

Check Print_Etro

Peacoat_Emporio Armani

Retro Color_Gucci

Animal Print_Paul Smith

Leather Jacket_Jil Sander

Charcoal Gray_Hermès

Turtleneck Sweater_Bottega Veneta

Easy Pants_Missoni

Hooded Coat_Ermenegildo Zegna

Glam Fur_Dior Homme

Parka_Calvin Klein

Crewneck Sweater_Fendi

Easy Pants_Prada

Mustang_Louis Vuitton

Peacoat_Salvatore Ferragamo

Art Pattern_Burberry Prorsum

2014 F/W Men's runway report

젊은 감성과 스트리트적인 요소 대두

남성 컬렉션이 매 시즌 더욱 기대되는 건 시즌을 거듭할수록 격동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맨즈 웨어 시장을 엿보는 재미가 쏠쏠하기 때문이다. 점점 더 진화하고 고급화되는 소재의 변화는 물론이거니와 T.P.O(ime, place, occasion)에 따른 스타일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여성스러 운 컬러 팔레트와 디테일을 서슴없이 활용하는 것만 보아도 남성복 시장이 얼마나 활기를 띠는지 실감할 수 있다. 남성복에 눈길 가는 또 다른 이유는 실용적인 시도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해 구매욕을 상승시키는 커머셜한 아이템이 가득하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시즌에 일로 절충적 이고 웨어러블한 스타일을 제안하려는 시도가 돋보였다. 먼저 위시 리스트에 등장 추가해도 좋을 만큼 다채롭고 실용적인 아우터가 대거 등장 했는데, 어떤 종류의 아우터든 한층 젊어졌다. 대표적으로 소재, 길이, 실루엣으로 다양한 변화를 준 피코트를 꼽을 수 있다. 기본 스타일은 유지하되, 소재에 변화를 준 제품이 주를 이룬다. 파카를 보이는 울을 사용해 구조적인 디자인의 피코트를 선보인 에르메오 아르 마니, 피코트에 피부를 장식적으로 매치한 페라가모가 그 예다. 에르메오제노 제노는 포말한 수트에 무심하게 특 걸친 클래식한 후디 코트를 제 안했고, 수트에 파카를 매치한 칼빈 클라인은 보다 활동적인 젊은 감성의 비즈니스 아우터를 선보였다. 수트 역시 캐주얼한 제품이 강세다. 노 타이로 연출하고 기장이 짧으며 경쾌한 것이 특징이다. 디스퀘어드는 클래식한 울 수트의 슬리브와 프린트 패턴에 가죽이나 대담 디테일을 패치워크하는가 하면, 루이 비통은 어깨의 패드를 제거하고 주름이 생기지 않는 가벼운 소재를 사용한 워크엔드 수트를 선보였다. 여자가 봐도 탈날 만큼 고급스러운 니트 컬렉션도 주목하자. 목선 가까이 올라오는 크루넥 니트의 약진이 두드러지는데, 셔츠나 재킷에 매치하는가 하면 펜 디의 롱 스웨터 코디네이션처럼 아우터 아래로 니트가 드러나게 연출하기도 했다. 목선이 여유로운 티블넥 니트 또한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보 테가 베네티의 티블넥과 같이 칼리처럼 접어 연출하는 스타일은 목이 짧아 보일까 봐 걱정했던 사람에게 화석이 될 듯.

report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고, 모두 다 입고 싶은 충동이 들 만큼 커머셜하고 실용적인 맨즈 웨어가 4대 도시 컬렉션의 런웨이를 점령했다. 자, 이제 이 페이지의 핫 트렌드를 확인하고 지갑을 열 일만 남았다.

클래식하고 친숙한 모티브부터 키친한 패턴까지

컬렉션 전반적으로 실용성이 부각되는 만큼 몸을 구속하지 않는 편안함도 중시된다. 트레이닝 팬츠를 연상케 하는 이지 팬츠(보테가 베네티)와 여유 있는 와이드한 실루엣의 테일라드 팬츠(미쏘니, 프라다)가 대표적. 이는 스포티한 느낌이 아닌 캐시미어 니트나 드레시한 실크 셔츠와 매 치해 고급스럽고 세련된 룩을 연출하는 것이 포인트다. 겨울 시즌의 하이리미트라 할 수 있는 모피와 가죽 아이템도 남성 컬렉션에서 빼놓을 수 없다. 시어링, 라쿤, 폭스 등 다채로운 소재의 피를 소개했는데, 공통점은 여성 모피를 연상케 하는 화려한 느낌에 남성적인 카리스마를 더한 야성적인 무드의 피를 강조했다는 점. 실루엣 역시 볼륨감 있게 디자인해 스타일에 강렬한 인パクト를 더한다. 작년에 이어 울겨울에도 무스탕의 열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시즌에는 비현실적으로 커다란 오버사이즈의 무스탕 코트가 주를 이뤘다면, 이번 시즌엔 좀 더 경쾌하고 활동적인 디자인이 눈에 띈다. 아우터뿐만 아니라 스웨터셔츠, 팬츠에도 활용되며, 무스탕의 시어링을 결연에 노출시켜 마치 퍼 재킷처럼 연출한 루이 비통의 룩도 눈여겨볼지. 칼라 트렌드는 F/W 시즌에 걸맞게 카키, 캐뮬, 딥 그린 등의 어스 컬러와 더불어 코발트 블루, 파스텔 계열이 포인트 컬러로 등장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바로 차를 갈라가 블랙을 대신했다는 것이다. 파피, 밀라노, 런던, 뉴욕 등 4대 컬렉션에서 공통적 으로 관찰할 수 있는 색감의 차를 갈라는 특이점으로 매치해 세련된 느낌을 내고, 블랙 대신 포인트 컬러로 사용되었다. 모던한 레트로 컬 러의 향연도 이어졌는데, 안개가 낀 듯 탁하면서도 풍부한 컬러 톤의 더스티 파스텔컬러를 키 컬러로 제시한 구찌의 컬렉션을 참고할 것. 프린 트는 클래식하고 친숙한 모티브부터 이트와 결합해 유행을 더한 키친한 패턴까지 적극 활용되었다. 전통성이 돋보이는 체크 패턴은 에르메, 생 로랑, 에르메오제노 제노에서, 동물원을 연상케 하는 각종 동물 모티브는 폴 스미스, 발렌티노에서 위트 있게 표현했다. 더불어 이트를 메인 테마로 해 영국 화가들의 작품, 런던 지도 프린트를 활용한 버버리 프로섬 역시 패션 피플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에디터 권유



THE FALL BOY

깊고 풍부한 눈빛, 부드러운 카리스마,
감미로운 표정까지, 이진욱의 가을이 무르익어 간다.
photographed by kim young joon

블랙 터틀넥, 패턴 실크
스웨트셔츠, 다크 그레이
팬츠, 벨트와 사선지퍼
장식의 블랙 앵클부츠
모두 발렌시아가.



진한 옐로 터틀넥 스웨터와
키키 브라운 팬츠
모두 랄프 로렌 퍼플 라벨.



직선적인 실루엣의 네이비 코트,
베이지 컬러 브이넥 니트 베스트,
연보라색 스카프, 그레이 팬츠
모두 프리다, 다크 브라운 슈즈
브루넬로 쿠치넬리.



텍사치가 독특한 곡선형 아이보리 코트,
라이트 그레이 니트, 화이트 셔츠,
브라운 팬츠 모두 구찌, 다크 브라운
레이스업 슈즈 브루넬로 쿠치넬리.

회화적인 프린트 패턴이 돋보이는
가죽 코트 **버버리 프로섬**, 버건디 컬러
모크넥 니트와 네이비 컬러 울 팬츠
모두 **Z 제나**, 블랙 트윈드 모자 **구찌**.



버건디 재킷과 머플러, 다크
브라운 레이스업 슈즈 모두
브루넬로 쿠차넬리.
팬츠 **틀레엔가바나**.



팔 라인이 독특한 캐시미어 니트
카디건과 블랙 실크 셔츠, 다크 그린
올 베스트, 그레이 울 팬츠 모두
에르메네질도 제나 꾸찌로 컬렉션.

* 본 화보에 나온 제품의 상세한
가격 정보는 (스타일 조션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tylechosun.com



가죽 질감을 갖춘 블랙 코트 피에르
발랑, 블랙 터틀넥 발렌시아가, 오렌지
컬러 새틴 팬츠 꾸찌, 다크 브라운
레이스업 슈즈 브루넬로 쿠치넬리.

헤어 이예숙
메이크업 박태운
스타일리스트 유은영
캐스팅 디렉터 안상미
에디터 배미진, 이예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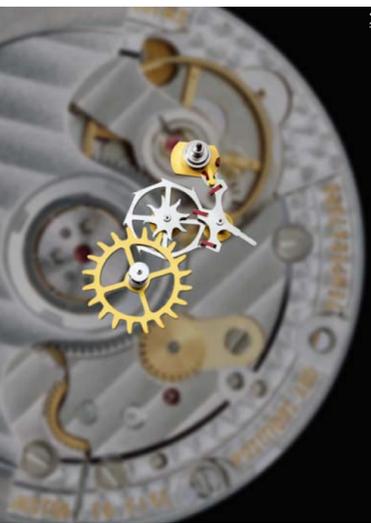
프라다 02-3218-5331
Z 제나 02-546-0287
구찌 1577-1921
브루넬로 쿠치넬리 02-3448-2931
랄프 로렌 퍼플 라벨 02-545-8200
올제엔가바나 02-3444-0077
비버리 프로섬 02-3485-6583
피에르 발랑 02-6905-3979
발렌시아가 02-542-1937
에르메네질도 제나 꾸찌로 컬렉션
02-518-0285



시계의 역사, 오메가의 역사
Vol.4_ De Ville

a revolutionary Spir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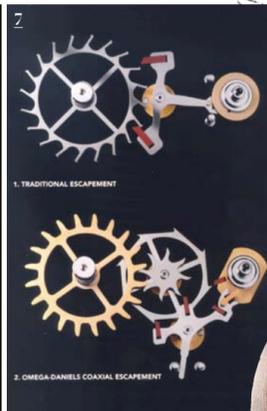
보수적인 기계식 워치 시장에서 굳이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을까? 게다가 만일 이미 주도권을 쥐고 있는 메이저 브랜드라면 현상을 유지하는 편이 투자를 낭비하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변화와 혁신, 그리고 발전을 원하는 오메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키를 잡았다. 완전히 새로운 워치메이킹 기술을 품은 단아한 클래식 워치를 선보이기로 한 것이다. 바로 오메가의 클래식 라인인 드 빌(De Ville) 컬렉션과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혁신적인 놀라움을 담은 코-액시얼 무브먼트에 대한 이야기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놀라운 기술을 담은 신사의 위치, 드 빌 컬렉션
청담동에 위치한 오메가의 플래그십 매장을 둘러본다고 상상해보자. 아마 오메가가 선보이는 대부분의 시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 시계를 접하는 사람이라면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시계를 구매하고 싶을 것이다. 당장 물에 뛰어들어도 될 것 같은 러버 밴드를 매치한 씨마스터 컬렉션과 달 착륙을 상징하는 앰블럼이 확연히 눈에 띄는, 어떤 속도라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은 복잡한 다이얼의 문 워치가 마음을 뒤흔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고 점원들의 응대를 받다 보면 이 모든 화려한 워치 사이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신사와도 같은 디자인의 드레스 워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드 빌(De Ville)' 컬렉션이다. 이 컬렉션은 오메가 최초의 컬렉션이나 가장 유명한 컬렉션은 아니지만 오메가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끔 한 오메가의 수문장이다. 드 빌을 오메가의 핵심 라인으로 꼽는 이유는 드 빌 라인이 우아한 드레스 워치일 뿐만 아니라 오메가의 중요한 워치메이킹 기술을 가장 먼저 선보이는 라인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이다. 1999년 오메가에서 최초로 코-액시얼 무브먼트를 탑재한 칼리버 2500을 드 빌에 장

착해 출시했고, 2007년에는 더욱 성숙해진 오메가의 코-액시얼 컬렉션을 상징하는 칼리버 8500/8501을 세상에 내놓았다. 2008년 스위스의 시계 박람회인 바젤 월드를 뒤흔든 오메가의 Si-14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최초로 장착한 것 역시 드 빌 컬렉션 모델이었다. 그렇다면 드 빌은 왜 수많은 라인 중 오메가의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인큐베이터가 된 것일까?

1960년, 드 빌의 시작
1960년대 첫선을 보인 드 빌 컬렉션은 처음 미국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진보적 마인드를 공략한 워치였다. 기존 씨마스터의 성공에 힘입어 오메가는 미국 시장에 무서히 안착했고, 1963년 새로운 드 빌 라인, '씨마스터 드 빌'을 선보이기에 이르렀다. 큰 성공을 거둔 씨마스터의 영광에 드 빌 컬렉션을 더한 것이다. 하지만 오메가에는 제품 수명이 긴 실용적인 요소에 우아한 디자인을 더한 보다 새로운 시계가 필요했고, 1967년 완전히 독자적인 드 빌 라인을 출시했다. 이전까지 철도 시간 계측 등 기능적인 요소를 우선했던 시계 개발에서 벗어나 상황과 장소에 어울리는 시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고,



1 (왼쪽부터) 2014년 신제품 마스터 코-액시얼 칼리버 8511G를 장착하고 오메가의 시그니처인 세드나 글드를 사용한 드 빌 트레저와 여성용 드 빌 프레스티지, 2 오메가의 무브먼트 역사에 결정적 변화를 가져다준 코-액시얼 이스케이프먼트, 3 코-액시얼 이스케이프먼트를 개발한 조지 다니엘스, 4 아주 미세한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기계식 무브먼트를 대량생산하기 위해 오메가는 모든 시스템을 재창조하고 있다. 5 최초의 드 빌 컬렉션, 지금까지 클래식한 향취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6, 12 마스터 코-액시얼 8500의 구조, S-14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은 이 컬렉션의 핵심 부품이다. 7 사진 중 위쪽은 기존 스위스 레버 이스케이프먼트의 구조, 아래는 현대 오메가에서 사용하는 코-액시얼 이스케이프먼트의 구조다. 8, 10 오메가의 코-액시얼 이스케이프먼트는 기존의 스위스 레버 방식에 비해 마찰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크기는 작아도 시계의 상층부에 볼리는 핵심 부품이다. 9 코-액시얼 8611 칼리버, 11 우아한 디자인의 드 빌 코노그레프, 13 오메가는 드 빌 이후 비전 라인의 인맥을 중 일부는 비전 라인의 '오르비스 인터내셔널' 후원을 사용한다. 이를 기념하는 드 빌 이후 비전 에디션 컬렉션, 14 코-액시얼 무브먼트에 특별 비용 기능을 탑재한 오메가 드 빌 트레저용 코-액시얼, 15 디아블 에너지를 새긴 럭셔리한 오메가 드 빌 프레스티지 바터블레이.

그 결과 드 빌이 태어난 것이다. 이는 드 빌 라인이 완전히 새로운 컬렉션으로 탄생한 사건이었을 뿐 아니라 손목시계에 대한 이미지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기능만큼 중요한 디자인,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의 구성 요소와 애틀리티드를 표현하는 도구로서 시계의 외형이 새로운 가치를 얻은 것이다.

드 빌, 오메가의 심장 코-액시얼 무브먼트를 탑재하다

하지만 오메가는 드 빌 컬렉션을 단순한 클래식 시계 라인으로 남도록 놓아두지 않았다. 드 빌은 오메가에 있어 마치 스캐치북 같은 라인이다. 오메가에서 새로운 기능에 도전하고자 할 때, 그 무엇보다 먼저 드 빌에 적용한다. 가장 급진적인 기능을 갖춘 클래식 워치인 것.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 안에 감춰진 완벽한 기계적인 요소라는 반전을 갖춘 컬렉션이기에 오메가의 모든 중요한 무브먼트의 개발에 드 빌 컬렉션을 인큐베이터로 활용하게 되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1999년 최초의 코-액시얼 무브먼트를 드 빌에 탑재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코-액시얼 이스케이프먼트(Co-axial Escapement)'에 관한 것이다.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이 단어는 시계 부품 이름이다. '코-액시얼'이란 세계적인 스위스 시계 브랜드 오메가에서 직접 제작하는 무브먼트에 장착된 특정한 부품, 탈진기(escapement, 규칙적인 시간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스프링이 풀렸다 감겼다 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규칙적으로 진동하는데, 시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시계의 심장'이라 불린다)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 탈진기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위대한 발명가이자 워치메이커였던 조지 다니엘스는 기존 스위스 탈진기의 최대 약점인 기름 응고 문제를 보완해 완전히 새로운 탈진기를 개발했다. 오메가는 1999년 최초로 코-액시얼 탈진기를 장착한 '코-액시얼 2500 무브먼트'를 탑재한 드 빌 컬렉션을



선보이며 무브먼트 개발의 선구자로 발돋움했다. 이 새로운 탈진기를 장착한 무브먼트는 기존의 무브먼트에 비해 마찰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효율성과 시간 측정 능력을 모두 높이는 혁신적인 결과를 낳았고, 지금은 대부분의 오메가 무브먼트에 탑재되어 있다.

단순한 발명품이 위대한 시계의 역사가 되기까지

코-액시얼 이스케이프먼트는 시계 역사에 일대 혁명을 가져다주었고, 오메가의 새로운 도약에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 새로운 이스케이프먼트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영국인 시계 장인 조지 다니엘스는 1980년대 초반 정교한 이스케이프먼트를 개발했고 스위스에서 여러 시계 브랜드에 자신의 발명품을 보여주었지만, 설득에 실패했다. 지금까지 수백 년간 스위스 레버 이스케이프

먼트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작동해왔기에 단순히 시계업자가 아닌 스위스 워치메이킹 시장 자체를 설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는 데, 심지어 시계업계의 선두 주자였던 파텍 필립이나 롤렉스조차도 이 발명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오메가는 이 놀라운 발견에 투자를 결정했고, 코-액시얼 이스케이프먼트의 산업화는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스토리 뒤에 바로 최초로 코-액시얼 무브먼트를 장착한 오메가 칼리버 2500과 이 새로운 오메가의 심장을 품은 드 빌이 태워지게 된 것이다. 코-액시얼 무브먼트의 오차를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작업은 꾸준히 계속되었고, 2013년 최초의 항자성 시계 무브먼트인 코-액시얼 칼리버 8508을 탄생시켰다. 이후 2014년 씨마스터, 드 빌 컬렉션에 접목시키며 상업화된 항자성 무브먼트인 마스터 코-액시얼 무브먼트는 오메가의 프리 스프링 밸런스 시스템, Si-14 소재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 3층 형태의 코-액시얼 이스케이프먼트까지 더해져 더욱 정밀하고 뛰어난 성능을 갖춘 무브먼트로 진화했다. 마스터 코-액시얼 무브먼트를 탑재한 모든 시계의 품질 보증 기간이 4년이라는 점에서 오메가의 무브먼트에 대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

조지 다니엘스는 생전 인터뷰에서 "기계식 시계의 생존 여부는 그 역사적, 기술적, 지적, 미학적, 실용적, 심지어 유희적인 품질에 달려 있지요. 이러한 자질 덕분에 기계식 시계는 오랜 세월 동안 인기를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단, 오메가와 같이 기계식 시계의 발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이 존재할 때 말이다. 오메가는 국내 시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문어발식 경영을 지양해,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20년간 오직 기계식 시계의 발전을 위해 투자했다. 코-액시얼에 대한 도전이 바로 그것이다. 2백50년 동안 공고해진 기계식 시계를 탈바꿈시키고자 한 오메가의 노력은 그 누구도 하지 않은 급진적인 연구를 대중화하는 등 오직 기계식 시계를 위한, 기계식 시계 브랜드의 남다른 노력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오메가가 브레게나 란에 운트 죄네처럼 1년에 단지 몇백 개 혹은 몇천 개의 시계를 만들어내는 브랜드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메가가 완성하는 엄청난 양의 시계에 이렇게 큰 변화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정과 생산 라인을 대대적으로 재장비해야 한다. 모든 라인업에 코-액시얼 무브먼트를 빠르게 도입한 것 역시 주목할 만한 점이다. 20년 이상의 투자와 노력으로 탄생한 예술품인 코-액시얼 무브먼트. 이 새로운 탈진 시스템의 개발로 오메가는 다른 스위스 시계 회사들에 기계식 시계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 코-액시얼 이스케이프먼트를 발견하고 이를 인정할 과정은 오메가의 본질과 매우 많이 닮았다. 혁명적인 요소를 받아들여 온전히 자기화하는 것, 그리고 1백 년이 지난 후 이를 클래식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오메가의 정신이며 이는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것이다. 에디터 배미란



(위부터 아래로) 스텔링 실버 소재의 볼드한 컷아웃 링, 불꽃같이 느껴지는 스퀘어 링,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다이아몬드 와이어 링, 얇고 여성스러운 느낌의 와이어 링 모두 TIFFANY T 컬렉션.



옐로 골드, 로즈 골드, 화이트 골드 등 다양한 소재로 출시한 체인 네크리스와 브레이슬릿. T 로고를 건축적으로 디자인해 볼륨감 있게 완성했다. 2개의 체인을 연결해 롱 네크리스로 활용할 수도 있다. TIFFANY T 컬렉션.



modern Icon

티파니의 디자인 디렉터 프란체스카 앰피테아트로프(Francesca Amfiteatrof)가 첫선을 보인, 타협할 수 없는 모던함을 담은 TIFFANY T 컬렉션. 에너지 넘치는 뉴욕의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시대의 모던한 아이콘이 될 티파니의 새로운 시그너처를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위부터 아래로) 얇은 밴드에 직선 느낌이 강렬한 T 로고를 모던하게 매치한 와이어 브레이슬릿, 얇은 밴드와 대비되는 모던한 T 로고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와이어 브레이슬릿 로즈 골드, 화이트 골드, 옐로 골드 모두 TIFFANY T 컬렉션.



(위부터 아래로) 스텔링 실버 소재의 화이트 비 카프, T 로고를 오픈워크 처리한 컷아웃 로즈 골드, 옐로 골드, 화이트 골드, 옐로 골드 등 선택할 수 있는 본작인 디자인의 스퀘어 브레이슬릿 모두 TIFFANY T 컬렉션. 문의 02-547-9488 에디터 배미진



debut Masterpie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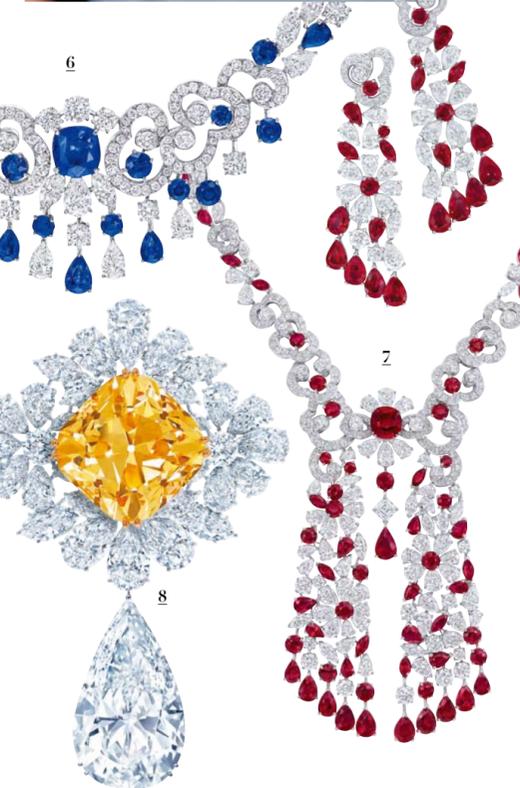
가장 아름다운 보석의 대명사 그라프, 그 찬란한 명성을 대변하는 진귀한 다이아몬드와 보석으로 완성한 아름다운 주얼리 컬렉션이 하이 주얼리의 성지, 앤티크 비엔날레에서 데뷔 무대를 가졌다.

파리 앤티크 비엔날레를 수놓은 그라프

지난 9월 파리에서 열린 2014년 앤티크 비엔날레(Antique Biennale 2014), 파리의 중심, 그랑 팔레에서 2년마다 개최되는 이 특별한 박람회는 진귀한 고가 구와 그림, 조각품은 물론 최고의 예술품으로 일컬어지는 하이 주얼리들이 데뷔하는 특별한 장소다. 희소성, 아름다움, 탁월함, 최고의 다이아몬드를 의미하는 주얼리 브랜드 그라프는 이곳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드라마틱한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였다. 전 세계 유수의 다이아몬드 기업 중 하나인 그라프는 채굴과 폴리싱은 물론, 격조 높은 핸드메이드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주얼리 메이킹의 전 과정에 참여한다. 런던에 위치한 본사를 비롯해 가장 최근에 매장을 오픈한 중국과 한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라프 설립자인 로렌스 그라프 회장은 하이주얼리 업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수성과 혁신의 기준을 마련했기에, 이번 앤티크 비엔날레에 출품한 컬렉션 역시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눈부신 브로치는 진귀한 유색 다이아몬드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내포한 네크리스는 드라마틱한 비즈 태슬 장식이 주는 형태와 디자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앤티크 비엔날레 현장의 S.B 4와 S.B 5에 위치한 그라프 전시장은 전 세계 46개 매장에서 볼 수 있는 럭셔리한 디자인 요소와 유니크한 특징을 조화롭게 배치했다. 모나코에 기반을 둔 그라프의 디자인 팀이 완성한 이 전시장은 대담한 스트라이프 대리석 플로어, 브론즈 쇼케이스 등 최고급 자재만 사용돼 맞춤 제작으로 완성해 더욱 특별했다.

최고의 보석, 로얄 스타 오브 파리

올해 앤티크 비엔날레 출품작 중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그라프의 주얼리는 바로 '로얄 스타 오브 파리(Royal Star of Paris)'. 펜던트로도 착용할 수 있는 이 브로치는 1백7.46캐럿 펜시 옐로 쿼츠 컷 다이아몬드인 '그라프 선플라워(Graff Sunflower)'와 1백 캐럿 D FL 페이 셰이프 다이아몬드 드롭인 '그라프 퍼펙션(Graff Perfection)'으로 이루어져 있다. 1백 캐럿이 넘는 다이아몬드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 정도 퀄리티와 무게의 다이아몬드 2개가 하나의 주얼리로 탄생했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라프 회장은 "그라프는 업계에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우리의 비전, 기술력, 장인 정신을 통해 영감을 불어넣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이아몬드와 독특한 보석을 탄생시켰다. 그 과정에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낀다. 우리는 환상적인 이야기를 간직한 역사적인 보석을 창조하는데, 그중 하나가 그라프 퍼펙션이다"라고 전했다. 블루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라 콜리에 블루 드 레브(La Collier Bleu de Rêve)' 역시 그라프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주얼리. 매혹적인 10.47캐럿 펜시 비비드 블루 IF 브리올레트 컷 다이아몬드 제품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매우 독특한 것의 블루 다이아몬드 장식되어 있다. 몽환적인 블루 다이아몬드는 눈부신 4.22캐럿 로젠지(lozenge) 컷 콜롬비안 에메랄드와 아름다운 대비를 이룬다. 다이아몬드 비즈 장식의 이 네크리스는 가운데 부분을 분리해 브로치로 착용할 수도 있다. 그라프 회장은 "가장 완벽한 원석을 찾기 위해서는 그린 에메랄드는 초록빛을, 레드 루비는 붉은빛을, 블루 사파이어는 파란빛을 더 많이 내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네크리스의 에메랄드는 매우 맑고 선명한 녹색을 띠어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에메랄드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진정한 보석이다"라고 이야기한다. 문의 02-2256-6810 에디터 배미진



1 앤티크 비엔날레에서 주얼리로 가득한 환상적인 전시장을 선보인 그라프. 2, 4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를 화려하게 세팅한 네크리스와 브레이슬릿. 팔리터 높은 산경한 블루 컬러의 사파이어 142.06캐럿을 세팅했다. 3, 5 라 콜리에 블루 드 레브. 그린 에메랄드와 블루 다이아몬드의 조화가 유니크하다. 4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로 태슬을 완성한 이어링. 7 마치 레이스처럼 다이아몬드로 루비를 수놓은 네크리스와 이어링. 네크리스에 59.43캐럿의 다이아몬드, 54.1캐럿의 루비를 세팅했다. 8 앤티크 비엔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한 로얄 스타 오브 파리 브로치. 실제로 보면 2백 캐럿이 넘는 다이아몬드가 내뿜는 박력만으로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진정한 시계 매뉴팩처, 파르미지아니 플라리에

the splendid Journey

기계식 시계를 부품까지 모두 제조하는 곳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역사는 짧지만 시계 복원, 100% 자사 제조와 타사 공급, 그리고 독창적인 시계 제작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탄탄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는 파르미지아니 플라리에의 매뉴팩처를 소개한다.

100% 자사 제조를 실현하는 브랜드

예수의 열두 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스페인 북서부 도시 산타야고 데 콤포스텔라로 가는 800km의 대장정, 산타야고 순례길에 다녀왔다. 1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지만 관광지화한 최근에는 그 길 주위로 난 현대적인 아스팔트 길을 따라 자전거, 버스와 택시, 자동차 중 선택해서 갈 수도 있는 순례길이 되면서 100% 걸어서 완주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영적인 힘을 간직한 길에서 진정성을 얻으려면 발자국을 내며 걷는 것에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당연한 테지만 말이다. 오늘날 시계업계를 살펴보자. 기계식 시계를 만드는 제조사 가운데에는 자사 제조를 내세우는 회사가 많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날 산타야고 순례길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우회로를 선택하는 회사가 많다. 전문 회사들에 부품을 의뢰하거나 기존 부품을 받아서 자사 디자인과 제조 부품과 결합해 제조하는 회사가 대부분이다. 헤어스프링이나 이스케이프먼트 등 가장 고난도에 속하는 부품을 제조하는 기술이 부족하거나 이를 갖추기 위해 파생되는 고비용이나 실용성을 이유로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시계 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모두 갖춘다면 대부분의 시계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 자명하니 그걸 꼭 부정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는 없다. 다만 그렇게 알게 모르게 서로 협력 관계에 놓여 있음에도 자사 제조를 내세우는 브랜드와 회사가 많은 이유는 그것을 높이 사는 고객의 신뢰도가 브랜드의 존재 의미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계업계에서 100% 자사 제조를 실현하는 곳은 단 몇 개 회사뿐이다. 그중에서 파르미지아니 플라리에가 있다.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는 장인 정신

시계사에서 보면 비교적 역사가 짧은데도 파르미지아니 플라리에가 진정한 시계 제조사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었던 것은 시계 제작자인 창립자 미셸 파르미지아니의 독특한 이력 덕분이다. 1970년대에 시계학과 마이크로 기계공학을 수학한 그는 시계 제조를 넘어 5백여 년간 내려온 기계식 시계 역사 탐구를 통해 시계 복원가로서 명성을 얻게 된다. 기계식 시계 시장이 전자식 시계에 위협받기 시작한 1975년 자신의 이름을 딴 회사 파르미지아니 메저 에 아르 뒤 탕(Parmigiani Mesure et Art du Temps)을 설립, 파리 장식미술관을 비롯한 여러 국립·시립 박물관이 소유한 옛 시계를 복원하고 부호들의 특별 주문을 받아 시계를 제작했다. 1995년 시계 연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간과 기계협회(Institut l'Homme et le Temps)'에서 가이아(GAIA)상을 수상했다. 1996년에는 소장품을 수리하면서 맺은 인연으로 스위스의 제약, 부동산, 레저, 미술, 음악 사업 재단을 운영하는 산도즈 재단(Sandoz Family Foundation)의 후원을 받으며 파르미지아니 플라리에란 브랜드를 본격 설립하고 1997년부터 고급 시계 박람회인 SIHH에 참여하게 된다. 산도즈 재단의 안정적인 재원은 짧은 기간 파르미지아니를 매우 탄탄한 브랜드로 만들었다. 그것은 100% 스위스산, 자사 제조가 가능한 기반을 구축한 덕분이다. 우선 기계식 무브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인 이스케이프먼트, 밸런스 휠, 헤어스프링 제조와 케이스 커팅, 터닝이 가능한 아토크알파(Atokalpa), 소재와 디자



인 개발, 케이스 마무리 과정을 진행하는 레장티장 부티에(LeS Artisans Boitiers), 무브먼트 터닝 킨트볼을 담당하는 엘윈(Elwin), 브리지와 팔렛, 케이스 장식과 무브먼트 제조 공장 보세(Vaucher), 최고 수준의 다이얼을 생산하는 콰드란스(Quadrance) 등 2003년까지 각각 전문적인 공장을 인수하고 구축해 100% 자사 제작이 가능한 독자적인 시계 생산 방식을 완성한 것이다. 그것이 창립자인 미셸 파르미지아니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결합해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자산이자 원동력이 되고 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창성

파르미지아니의 사업 영역은 크게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는 복원 작업이다. 40여 년 전 브랜드를 창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시계 복원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이는 과거의 시계를 통해 현재의 시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그야말로 온고지신(溫故知新)의 해법이다. 피보나치 수열을 바탕으로 한 회중시계, 태음력을 담은 헤리지언 캘린더 탁상시계 등의 유니크 피스들은 이러한 과거의 유산을 복원하면서 받은 영감과 이를 현대화하는 연구를 통해 탄생한 결과물이다. 두 번째는 유명한 시계 회사와 브랜드에 부품과 무브먼트를 공급하는 상호 협조 정신이다. 산도즈 재단 산하 부품 회사들은 비단 파르미지아니의 제품뿐만 아니라 코롤, 리치드 밀, 드 그리스고노, 헤리 윈스턴, MB&F 등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유명한 시계 브랜드에 부품을 공급하거나 그들과 협업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부상조(相助相助)는 산하 회사들의 품질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과 이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된다. 마지막으로 절자탁마(切字卓磨)를 통한 파르미지아니 플라리에만의 독자적인 시계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파르미지아니는 20여 개 이상의 자사 무브먼트와 갈과, 툴다, 부가티, 필싱, 트랜스포마, 그리고 올해 소개한 툴다 메트로 등 각기 개성 있는 컬렉션과 탁상시계, 오토 오희로제리 등 독창적인 하이 컴플리케이션 시계 컬렉션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피보나치 수열에서 착안한 케이스 측면 러그 부분의 갈과 프로파일, 다른 브랜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컬러의 다이얼, 수제로 가공, 부착하는 핸즈와 자체적으로 조립, 제작하는 무브먼트 등 파르미지아니만이 지닌 고유한 코드는 단기간에 헤이엔드 시계업계에서 독창적인 입지를 구축하도록 만들어주었다.

대중적인 후원 활동과 후학 양성

어느 시계 회사처럼 파르미지아니도 다양한 후원 활동을 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특정 계층만이 향유할 수 있는 스포츠나 행사가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인 행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5년부터 참여해 2007년 공식 스폰서로 활약한 사토데의 벌룬 페스티벌, 세계조정연맹(FISA :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Sociétés d'Aviron)과 브라질축구협회(CBF : Confederação Brasileira de Futebol) 등에 대한 후원은 시계 제조사로서 모험, 탐구, 정교한 기술에 대한 정신을 함께 나누는 과정이다. 다른 활동은 문화 후원을 통한 후학 양성이다. 2007년부터 시작한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 로카르노 필름 페스티벌 등 문화적인 활동 후원에 함께 하는데,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의 경우 젊은 음악가를 후원하는 상을 재정해 수여하고 있다. 2014년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엘리제 사진박물관(Musée de l'Élysée)과 파트너십을 맺은 이유도 그런 맥락이다. 엘리제 사진박물관은 1985년 창립한 이래 10만여 점 이상의 사진 컬렉션을 보유하고 사진 자료의 소장·보관, 그리고 복원 작업을 하는 동시에 젊은 사진작가를 발굴하는 건설적인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파르미지아니가 동참하고 있다. 플라리에에 위치한 파르미지아니 본사 내 복원 아틀리에를 방문하면 의외로 젊은 시계 제작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음에 놀라게 된다. 비단 과거의 유산을 복원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후학을 양성하는 일야말로 중요한 의무이자 책임임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다. 긴 역사를 자랑하며 유산을 되살리는 데 더 치중하는 오래된 브랜드와 달리 역사는 짧아도 복원가로서의 명성은 위대한 전통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해법에 집중해 미래에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활동을 통해 파르미지아니는 브랜드의 가치와 역사를 재정의하고 있다. **글** 최정민(타임포럼 대표, 스위스 파르미지아니 본사 현지 취재)



1 파르미지아니의 복원실과 마케팅실, 기획실 등이 자리한 파르미지아니 플라리에 본사. 2 케이스 제작사 레장티장 부티에와 다이얼 제작사 콰드란스 두 회사는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3, 5 파르미지아니가 복원한 오발 펜토그래프에 영감을 준 회중시계와 무브먼트 부분. 4 산도즈 재단 소유로 파르미지아니가 복원한 라 퀴에틀레 데 세리즈(La Cueillette des Cerises) 회중시계.

6 파르미지아니가 복원한, 러시아의 전설적인 예술가이자 주얼러인 피터 카를파베르제(Peter Carl Fabergé)가 제작한 파베르제에 그 탁상시계. 7, 10 무브먼트 제조사인 보세 매뉴팩처. 8 로잔에 위치한 엘리제 사진박물관의 사진 보관소. 9 시계 제작자 미셸 파르미지아니. 11, 12 보세 매뉴팩처의 부품 가공과 조립 작업. 13 복원한 회중시계를 현대적인 손목시계로 재탄생시킨 파르미지아니 오발 펜토그래프 시계. 14 다이얼 제작사 콰드란스의 작업 과정.



for Red-letter Day

이혜원이 입은 화이트 셔츠 랑방 칼라션, 블랙 스커트 이모, 레드, 카키 컬러로 이루어진 소매 토트백, 오른쪽에 놓인 부드러운 향대의 롤링 백 모두 발리, 안정환이 입은 데님 셔츠와 팬츠, 팔링 베스트, 포켓 스커터 모두 발리입니다.



for him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가장 왼쪽에 브랜드 로고를 새긴 황금도 높은 모노그램 토트백, 미니멀한 형태의 견고한 가죽과 지퍼 장식이 돋보이는 백백, 발리 고유의 패턴을 담은 울 소재 머플러와 장갑, 밑창에 포인트를 준 스니커즈 모두 발리.



for Family Trip

안정환이 든 카디건 트래블 백과 웰시 부츠, 가죽 장갑 모두 발리, 스웨이드 패딩 베스트, 터틀넥, 팬츠, 포켓 스커터 모두 발리입니다. 이혜원이 맨저만한 칼라의 락업 슬러백, 안쪽에 양털을 더한 스웨이드 부츠 모두 발리, 스웨이드 베스트, 티셔츠, 니트 레깅스 모두 발리.

24hours 7days

제출사단 박건우

1백6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오직 최고의 품질을 추구해온 스위스 명품 브랜드 발리가 안정환·이혜원 부부와 만든 아름다운 순간, 둘만이 간직하는 기념일, 아이들과 떠나는 가족 여행,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운동 등 풍요로운 일상에는 늘 발리가 함께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특별하게 빛내주는 발리의 2014 F/W 컬렉션.



(왼쪽부터) 카디건 사이즈의 브라운 컬러 소매 토트백, 선명한 다홍빛의 칼라치 백 경용 지갑, 투톤 컬러 블랙이 돋보이는 플랫슈즈, 오른쪽에 놓인 미니멀한 발자크 토트백과 아래 놓인 볼드한 지퍼 장식의 칼라치 백 경용 지갑, 카드 홀더와 포인 디테일 가죽 브레이슬릿 모두 발리.



for Couple Sports

이혜원이 맨 노란색 크로스 백, 발리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스웨이드 스니커즈 모두 발리, 그레이 니트 베스트 랑방 칼라션, 니트 레깅스 이모, 안정환이 맨 캐주얼한 싱글 스트랩 보디 크로스 백, 오카르 스니커즈 모두 발리, 후디 스웨트셔츠, 트레이닝 팬츠, 패딩 베스트 모두 발리입니다.

for her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모서리 한쪽을 지본 듯 미니멀한 형태의 블랙·올리브 그린 컬러 코너 백, 브리프케이스 형태의 신뜻한 옐로 컬러 본드 백, 미니 사이즈의 핑크빛 카렌 백, 굵은 짜임이 돋보이는 머플러와 매시한 옥스포드 슈즈 모두 발리, 문의 02-3467-8835



(왼쪽부터) 로즈 사나크티프, 사나크티프 로씨옹, 사나크티프 크림, 사나크티프 시본, 사나크티프 이드라팡 뉘 모두 플레드뵈 보떼.



Synergie & actif

럭셔리 스킨케어의 기준이 된 플레드뵈 보떼의 시나크티프 라인. 만일 이 이름을 처음 들어봤다면, 진정한 프리미엄 스킨케어의 정수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충성도 높은 VVIP 리스트를 보유한 것으로 유명한 브랜드인 만큼 쉽게 제품을 리뉴얼하지 않는데, 드디어 올해 시나크티프 라인에 새로운 기능을 더했다. 기술과 정성, 풍부한 텍스처로 리뉴얼되어 '정화 효과'라는 키워드로 다시 찾아온 시나크티프 라인의 특별한 변신.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피부 정화로 시작되는 아름다움, 시나크티프 라인

플레드뵈 보떼의 프리미엄 라인인 시나크티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그 유명한 비누, '사본(Savon)'이다. 제작하는 데만 4개월이 걸리는 시나크티프 사본은 클렌징과 세안, 수분 공급 기능은 물론 다음 단계의 활성 성분을 침투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부스팅 기능까지 갖춘 놀라운 비누다. 향기와 텍스처, 효과까지 모든 면에서 뛰어난 밸런스를 갖췄기에 출시하자마자 인상적인 판매량을 기록했다. 뷰티 에디터 사이에서도 꼭 한번 써보고 싶은 제품으로 꼽히는 사본은, 플레드뵈 보떼를 처음 접하는 고객을 마니아로 만들 정도로 효과가 놀랍다. 까다로운 플레드뵈 보떼가 왜 프리미엄 라인의 메인 제품으로 비누를 선택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퀄리티의 클렌저인 것. 고농축 수분 에센스 1병에 해당하는 히알루론산이 담겨 있는 데다 프랑스 최고의 보테닉 컴퍼니가 11년 동안 플레드뵈 보떼의 시나크티프만 위해 연구 개발한 블루 로즈 향은 우아하게 코끝에 스며든다. 이 향기를 별도로 시나크티프 라인의 향수로 선보였을 만큼 브랜드의 자부심과 애착이 깊은 향이기도 하다. 에센스만으로도 효과가 강력한 로션인 '시나크티프 로씨옹', 자외선 차단 기능과 주름 기능성 인증을 받은 모이스처라이저 '시나크티프 이드라팡 주르' 역시 수분 전달력과 발림성이 여타 크림만큼이나 뛰어나다. 밤에 바르는 모이스처라이저인 '시나크티프 이드라팡 뉘'도 밤 동안 피부 순환을 도와 모공과 주름이 눈에 띄지 않는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준다. 데이와 나이트로 구성된 모이스처라이저는 단순히 에멀션으로 치부하기에는 발림성이 탁월하다. 부드럽고 촉촉하며 바르는 순간 즉각적으로 피부 수분력이 높아지는 느낌이다. 워낙 제품의 완성도가 높은 플레드뵈 보떼에게 일반적인 화장품 라인업으로 구성되는 클렌저와 토너, 에멀션까지 브랜드의 정수와 힘을 담았다. 브랜드의 기초를 지키기 위해, 단순히 매출을 위한 신제품을 선보이지 않는 보수적인 브랜드에게 플레드뵈 보떼의 프리미엄 라인인 시나크티프 전체가 리뉴얼되었다는 것은 매우 기대되는 소식이다.

페이스 라인을 잡아주는 시나크티프 크림

플레드뵈 보떼가 시나크티프 라인을 선보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라인에서 중요한 제품이 바로 트리트먼트 크림이다. 이 크림은 MACC-PD 성분을 담아 세계 최초로 피부 노폐물의 배출을 도와주는 기능을 강조한 화장품이었기에 뷰티 커뮤니티에 널리 퍼져온 바 있다. 처음에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을 선보였고, 올해 업그레이드되며 새로운 마사

지 방법을 도입했고, 이를 통해 얼굴의 미세 순환을 관리해 피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요소를 정화해준다. 쉽게 말해 피부의 정화 기능을 정상화해 노폐물을 회수하고, 배출 기능을 강화해 얼굴 라인을 더욱더 탄력 있게 가꿔주는 것이다. 이렇듯 피부 근본의 순환과 배출이 원활해지면 피부 스스로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강화되어 피부색과 텍스처, 페이스 라인 교정 효과까지 한꺼번에 얻게 된다. 이 크림을 바르자마자 감동하게 되는 것은 그 무엇보다 매끄러운 텍스처 때문이다. 피부에 곧바로 부드럽게 녹아들고 끈적임 없이 흡수된다. 다크서클과 잔주름은 물론 페이스 라인을 탄탄하게 정리해준다. 또 주름과 미백 기능성 인증을 받아 노화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요인에 피부가 스스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에 많은 여성들의 사랑을 받았다. 플레드뵈 보떼에서 처음 이 크림을 선보였을 때는 1백만원이 훌쩍 넘는 가격 때문에 의견이 분분했지만, 기존 VIP는 물론 럭셔리 브랜드를 경험해본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마음도 사로잡아 지금은 놀라운 재구매율로 브랜드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사본으로 피부를 정화하고 선과 모이스처라이저로 피부 텍스처를 부드럽게 만든 후, 크림으로 완벽하게 케어해 페이스 라인을 탄탄하게 조여주는 과학적 접근으로 완성한 플레드뵈 보떼 안티에이징의 새로운 해법이다. 물론 이 방법이 효과적이었기에 까다로운 소비자들 시나크티프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했고, 플레드뵈 보떼는 더욱 발전한 라인을 올해 새롭게 선보이게 된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선이 무너지는 것을 고민하는 중년 여성이라면, 진피의 피부 지지력을 회복하고 얼굴의 부종을 관리하고 싶은 여성이라면 노화를 근본적으로 방지해주는 시나크티프 라인의 크림을 추천한다. 시나크티프 사본 100g 13만8천원대, 로씨옹 125ml 27만원대, 이드라팡 주르 20ml 27만원대, 이드라팡 뉘 40ml 40만원대, 크림 40ml 1백60만원대. 문의 080-564-7700 에디터 배미진



플레드뵈 보떼의 모델인 아만다 사이프리트. 세계적인 아 배우로 오랫동안 플레드뵈 보떼의 제품을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Purify within. Perfection beyond.
Simply transformative.

SYNERGIE & ACTIF

플레드뵈 보떼
NEW 시나크티프 크림

주름개선기능성인증 | 미백기능성인증

www.cledepeau-beaute.com

SYNERGIE & ACTIF
Crème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안나수이 라누드보렐 오드 푸왁벳** 로맨틱하고 관능적인 프루티 플로럴 우디 향초의 향수로, 보틀 위에 시뮬리 내려앉은 나비와 아름답게 만발한 장미 꽃 오트브의 골드 패키지가 여성스러움을 더욱 극대화한다. 골드 애플과 블랙베리의 달콤한 향을 시작으로, 여성스러운 장미, 관능적인 파플리카와 사파루드가 부드러운 향을 남긴다. 50ml 8만5천원, 문의 080-800-8809

샤넬 수블리마지 레벤스 피부 속 독소를 제거하고 피부 재생력을 향상시키는 리치리 에센스. 독자적인 활성 성분인 골드 펩타 PFA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피부 자체의 독소 제거 능력을 활성화해 탄력 있고 촉촉한 피부로 가꿔준다. 30ml 50만5천원, 문의 080-332-2700

디올 자도로 압슬뤼 육감적인 여성의 보디라인을 보듯 매끄럽고 화려한 골드 메탈로 장식한 플로럴 부케 향수. 5월의 장미, 다마스쿠스 로즈, 삼백 재스민, 인디안 튜베 로즈가 조화를 이룬, 강렬하면서도 매혹적인 플로럴 향이 돋보인다. 50ml 16만9천원, 문의 02-3438-9537

설화수 지어전 에센스 피부 탄성을 키워 깊어지는 주름을 완화하고 탄력을 개선하는 안티에이징 에센스. 피부 탄성이 무너진 주름이 피부 속으로 깊고 넓게 뻗어가는 현상이 본격화된다는 것에 주목, 피부 탄성을 키워는 진귀한 인삼 성분을 담았다. 더불어 성분을 집중화해 피부에 신선하고 빠르게 전달하는 진세노스피아™ 기술력을 적용해 피부 개선 효과가 더욱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35ml 15만원 대, 문의 080-023-5454

클라리스 토털 V 에센스 과다나, 제멜렛 진저, 감 추출물 등을 핵심 성분으로 함유해 두루뭉술한 얼굴선을 매끈하게 정돈하고 차진 피부를 탄력 있게 리프팅하는 V라인 에센스. 배타인 셀룰이 뛰어난 보습 효과를 선사하고, 유가농 오트 슈거 추출물이 미세하게 차진 부위까지 끌어당겨 쫄쫄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완성한다. 50ml 9만4천원, 문의 080-542-9052

아모레퍼시픽 안티에이징 CC 쿠션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 개선 효과의 3중 기능을 자랑하는 안티에이징 CC 쿠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녹차 다량추출과 피부 밀도를 촉촉하게 만드는 그린 미라클™ 성분을 함유해 메이크업과 동시에 스킨케어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시간이 지남 피부가 칙칙해지는 디스닝 현상이 없으며 비르민 비올수록 촉촉함이 배가되는 것이 장점. 15gx2개리필 포함 8만2천원대, 문의 080-023-5454

리프레이 셀룰라 레디언스 컨센트레이트 퓨어 골드 24K 순금을 함유해 최상의 트리트먼트 효과를 선사하는 퓨어 골드 세럼. 콜로이드 젤 속에 녹아든 퓨어 골드 성분이 주름, 탄력 손실, 잡티 등을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즉각적인 브라이트닝 효과로 피부 톤을 고르고 화사하게 가꿔준다. 30ml 77만5천원, 문의 080-511-6626

젤랑 로르 베이스 글릿으로 반짝이는 화사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연출하는 메이크업 베이스. 수분 스프링 젤에 함유된 24K 순금 성분이 칙칙한 피부를 부드럽게 개선한다. 피부에 닿으면 물로 변하는 독특한 젤 타입 제형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가꿔주어 메이크업이 들뜨지 않고 매끄러운 피부 표현이 가능하다. 30ml 8만9천원, 문의 080-343-9500 에디터 권유진



golden Premium

눈부시게 반짝이는 골드는 눈으로 보기에, 피부에도 좋다. 24K 순금이 함유된 세럼부터 골드 패키지로 아름답게 장식한 향수까지 화려함을 더하는 단 하나의 터치, 골드 뷰티 아이템.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샬롯(Charlotte) 권유진(스타일 조선훈보) 뷰티 에디터
"레드 립스틱은 반드시 나스 제품만 사용해요. 20주년 기념 컬러라는 것도 멋지지만, 제가 좋아하는 배우 이름인 샬롯이 립스틱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꼭 써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미치요(Michiyo) 채림(어배우)
"원래 핑크 컬러를 좋아하는데 미치요 립스틱은 동양인에게 잘 어울리는 핑크 컬러 같아요. 청초하면서도 우아한 신부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선택했어요."



아나벨라(Annabella) 고태음(매션 디자이너)
"생동감이 느껴지는 밝고 열정적인 아나벨라 컬러는 애니메이션 느낌이 가득하죠. 내추럴 베이스에 강렬한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주는 것은 이번 시즌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audacious Lipsticks

브랜드 론칭 20주년을 맞은 코스메틱 브랜드 나스(NARS). 대담한 아름다움을 기념하는 '어데이셔스 뷰티(Audacious Beauty)' 캠페인을 기념하며 40가지 컬러의 립스틱을 선보였는데, 이미 특정 컬러는 품절을 기록했을 정도로 인기다. 클래식한 여배우를 오마주하는 이름을 담은 데다, 탄생 20주년 캠페인 모델로 60세가 넘는 샬럿 램플링을 선정했기에 더욱 의미 깊다. 이 특별한 립스틱에 대한 오피니언 리더 20인의 감상을 지난 9월 1일부터 <스타일 조선훈보> 블로그에 소개해 뜨거운 반향을 얻었다. 그중 7인의 인터뷰를 지면으로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어데이셔스 립스틱 모두 나스 4.2g 3만9천원, 문의 02-6905-3747



캐서린(Catherine) 브래드 리틀(뮤지컬 배우)
"참 사랑스러운 립스틱이에요. 자연스러우면서도 예쁘고, 여자를 돋보이게 하는 컬러인 것 같아요."



마릴린(Marlene) 한혜연(스타일리스트)
"마릴린 번호를 떠올리게 하는 가을과 잘 어울리는 관능적인 레드. 색시름을 넣어서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다는 표현으로 마릴린이라는 립스틱을 선택했어요. 이로부터 특별하지 않나요?"



오드리(Audrey) 고원혜(메이크업 아티스트)
"우아하면서도 깊은 느낌을 주는 컬러는 정말 여배우 오드리 험번의 멋진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지죠. 고전 배우들에게 영감을 받아 립스틱 컬러를 네이밍한 것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라나(Lana) 김성원(스타일리스트)
"올겨울 유행 패션 컬러는 카키, 올리브예요. 이와 대비되는 라나 컬러 립스틱을 보면 굉장히 세련되어 보이겠죠. 상냥한 레드 컬러라 뉴트럴 컬러에도 잘 어울려요." 에디터 배미진

editor's Pick

그날막에 누워 여유롭게 책 한 권 읽고 싶은 풍요로운 계절. (스타일 조선훈보) 기자들의 화장품은 기능성 안티에이징 제품을 선두로 스킨케어 기능을 강화한 립밤, 보송한 마무리를 위한 파우더로 요약된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리프레이브 블루라 아이 에센스, 블러블 레어 아이 초고 클레어 레어 크림의 메쉬를 잘 알고 있었던 타리 아이 케어 제품도 가까이 봤는데, 그 이상으로 만족을 준 제품이다. 문칭 행사 때 리프레이브 VIP 리운저에서 마사지를 받으며 체험했는데, 문칭하면서도 촉촉한 텍스처가 기분에 낫는 제품. 다양한 아이 케어 라인을 갖추고 있는 리프레이브도 가까이 가장 높은 아이 제품인 만큼 효과를 기대해도 좋다. 15ml 45만8천원. 문의 080-511-6626. *_by 에디터 배미진*

결량 립케어 드 보 콤팩트 피운데이션 자연스러운 텍스처로 마니.이즘을 형성한 결량의 피운데이션 팩트. 립케어라는 이름만큼 밀착감이 뛰어난 재원으로, 촉촉하기까지 하다. 카바라치.이.지.에게 강한 제품이 거부감이 있고 부드러운 피맛결을 원하는 이들에게 추천하는 콤팩트 피운데이션. 10g 8만15천원. 문의 080-343-9500. *_by 에디터 배미진*

디올 루즈 디올 밤 바르는 즉시 길어진 주름을 매워주고 건조함을 해결하는 립 제품. 디올 립스틱 중 이 것만큼 케어에 집중한 제품이었나 싶을 정도로 보습력이 풍부하다. 진한 컬러감보다는 입술이 건조해지지 않으면서 적당한 색감을 들게 하며, 발림성까지 뛰어난 립스틱이 필요한 분들께 추천. 3.2g 4만원. 문의 02-3438-9631. *_by 에디터 이재진*

일리 토탈에이징 케어 스크럽 워시 보습과 탄력을 모두 선사하는 보디 클렌저. 까칠한 스크럽 제품 대신 크림 타입의 클렌저에 스크럽을 담아 편하게 거품을 제거하고 보습까지 더할 수 있는 제품이다. 어느 보디 클렌저처럼 스프레이 타입에 묻혀 거품을 내서 사용한 후 씻어 47만 4천 원. 사용하자마자 매끄러운 피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다. 400ml 1만15천원. 문의 080-023-5454. *_by 에디터 배미진*

샤에도 퓨처 솔루션 LX 토탈 레디언스 루스 파우더 파우더를 자주 사용하는 입자. 보송한 마무리나 수경 메이크업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부드럽고 도톰한 피프에 덮어 얼굴에 가볍게 두드려면 미세한 파우더 입자가 착하고 달라붙어 다크닝 현상을 잡는다. 티 나지 않게 피부 톤이 정리된다는 점이 마음에 쏙 든다. 10g 9만원. 문의 080-564-7700. *_by 에디터 이재진*

남스아드 레디언스 프랑킨센스 인텐스 해외 셀러브리티가 즐겨 사용한다는 남스아드 레디언스는 친환경 재배한 천연 식물에서 유래 성분들을 추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진 유능 코즈메틱 브랜드다. 피부의 유연성을 높이는 이 프랑킨센스 크림은 연구 차원 진득한 제형이라 두드러 흡수되면 피부가 탄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50g 11만8천원. 문의 02-3445-4656. *_by 에디터 이재진*

글레드보 보네 로즈용 멍드르 처음 사용하자마자 감동한, 에센스만큼 촉촉한 토너. 브랜드의 노화유와 자외선 노화유는 기초 제품으로, 잠시 유행하는 제품에서는 느낄 수 없는 깊은 보습감을 확인할 수 있다. 소량만으로도 얼굴 전체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매혹적인 제품이다. 토너 혹은 로션이라는 명칭이 아닌 부스팅 에센스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약간성용 제품도 별도로 출시되어 있다. 170ml 15만원. 문의 080-564-7700. *_by 에디터 배미진*

오희 이지 리라버리 수퍼 안티에이징 에센스 노화가 시작된 피부에 콜라겐이 줄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 파우더에 그려진 베이지 컬러는 표안티노로도 어필할 것만 같은 실리적 효과를 가져다준 에센스다. 콜라겐이 응집되어 있는 듯 쫄쫄한 제형이 피부를 평평하게 하며, 발림성이 좋아 마사지가기가 한결 수월하다. 45ml 12만원. 문의 080-727-5252. *_by 에디터 이재진*

보태가 베네타 낫 오드 퍼플 아직 2개의 제품을 출시했을 뿐이지만, 매장에서만 판매하는 부티크 향수를 선보이는 브랜드로서 만족스러운 반응을 얻은 보태가 베네타의 두 번째 향수 낫(Knot). 브랜드의 시그니처인 클라치 백의 정제장에서 영감을 받은 패키지가 아름답고, 향기 역시 우아한 절제미를 갖췄다. 싱그러우면서 깊은 진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장점. 50ml 15만원. 문의 02-6924-6572. *_by 에디터 배미진*

니스 일루미네이터 코파카바나 피부와 핑크와 조화를 이루는 오묘한 컬러에 골드 빛 광택을 담은 플루이드 타입 베이스. 상황에 따라 피운데이션과 섞어 전체적으로 사용하거나, 광대, 눈썹, T존 부위에 하이라이터로 사용하면 된다. 과하지 않은 광채 덕분에 얼굴 윤곽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듯. 30ml 4만2천원. 문의 02-6905-3747. *_by 에디터 이재진*

이슬 프로텍티브 립밤 돌아서면 건조해지는 입에는 립스틱 하나만으로는 메마른 입술을 진정시킬 수 없기에 잘라가 없는 립 제품을 베이스로 사용한다. 첫인상은 조금 딱딱하다 싶을 정도로 제형이 단단한 편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입술에 자연스럽게 녹아나니 걱정할 필요 없다. 남자가 사용해도 좋은 도톰한 패키지도 인기에 한몫한다. 5.5g 2만15천원. 문의 1800-1987. *_by 에디터 이재진*



바르는 향수, '향수 바디크림'

감각적인 향의 세계를 선보여온 영국 정통 향수 브랜드 조 말론 런던이 향수 한 병을 그대로 담은 바디크림을 제안한다. 바디크림만으로도 충분한 매혹적인 향, 촉촉한 보습력까지 모두 놓치고 싶지 않은 이들에게 더없이 만족할 만한 선택이 될 것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향수 한 병을 그대로 담은 조 말론 런던의 럭셔리 바디크림

정통 브리티시 스타일을 담은 브랜드 조 말론 런던은 1994년 론칭한 이후 특별하면서도 순수한 기법으로 완성한 세련된 향으로 전 세계를 매료시켰다. 절제된 스타일과 참신한 세련미, 우아함에 깃든 과감함, 유행을 타지 않는 고상함, 위트와 기발한 매력은 조 말론 런던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 크림색 박스와 블랙 리본으로 이루어진 포장 박스는 모든 이들이 받고 싶어 하는 선물용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을 정도다.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계절이 오면 향수만큼이나 열렬한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조 말론 런던의 향을 그대로 담은 향기로운 바디크림이다. 향수 한 병이 그대로 들어가 '향수 바디크림'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급스러운 향이 매혹적이다. 최고의 프레이그런스 하우스의 노하우를 담은 만큼 향의 완성도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향수 대신 바디크림 하나만으로도 하루 종일 유지되는 잔향 역시 인상적이다. 걸그룹 씨스타의 소유는 "조 말론 런던 바디크림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듬뿍 발라요. 향수 대신 조 말론 런던 바디크림 하나만 발라도 하루 종일 기분 좋은 향이 감돌죠. 바르고 한참 지나도 사람들이 향이 좋으면서 무슨 제품인지 물어볼 때가 많아 더 만족스러워요"라고 말하며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조 말론 런던 바디크림은 15가지로 선보여 개인의 취향과 스타일에 맞게 매치할 수 있어 향수와 레이어링하는 것을 즐기는 이들도 있다. 최상의 성분으로 이루어졌으며 촉촉한 수분력을 겸비해 향과 보습을 동시에 해결하고 싶은 이들에게 제격이다. 호호바 오일과 코코아 버터, 아몬드가 함유된 아주 특별한 바디크림의 텍스처는 거칠고 건조한 피부를 수분으로 코팅한 듯 촉촉하고 매끄럽게 만들어 준다. 바디크림을 처음 접해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가까운 조 말론 런던의 부티크를 방문해보자. 영국 고급 살롱을 방문한 듯 평화롭고 조화로운 안식처 역할을 하는 조 말론 런던 매장에서는 각자의 분위기에 맞는 향을 선택하는 방법에서부터 특별한 선물이 이르기까지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맞춤 서비스를 진행한다. 한국 최초의 매장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관을 비롯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신관, 신세계백화점 부산 센텀시티점, 최근 오픈한 압구정동 갤러리1백화점 매장에서 조 말론 런던의 감각적인 바디크림의 세계를 접할 수 있다. 조 말론 런던 바디크림 각 175ml, 11만5천원. 문의 02-3440-2750

럭셔리한 향의 조 말론 런던의 향수 바디크림 에센셜 5

- 1 남자들이 더 좋아하는 우드 세이지 앤 실 솔트 바디크림** 바람 부는 영국 해변에서 느낄 수 있는 풀과 흙, 시슬트의 향이 어우러져 신선한 향을 선사하는 크림. 조 말론 런던 스타일리스트들이 가을에 가장 잘 어울리는 베스트 향으로 추천한 바디크림으로, 자유롭고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지는 중성적인 매력 때문에 남녀 모두에게 사랑받는다.
- 2 조 말론 런던의 시그니처 향 '리임 바질 앤 만디린 바디크림'** 조 말론 런던의 시그니처 향이자 스타일러, 리임 바질 앤 만디린 향수의 바디크림. 카리브해의 신들바람에 실려온 듯한 리임향에 특 쓰는 바질과 향기로운 백리향의 조화를 이루는 현대적인 감각의 향이다.
- 3 자꾸만 맑고 싶은 시라스러운 살 내음 '잉글리쉬 페어 앤 프리지아 바디크림'** 가을의 정수, 화이트 프리지아 부케 향을 느낄 수 있는 바디크림. 화이트 프리지아를 중심으로 신선한 배아 파슬리, 우디의 은은한 진황을 더해 시라스러운 향으로 완성되었다. 데이트할 때 상대방에게 신선함과 호감을 줄 수 있는 기분 좋은 향.
- 4 에디터들의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블랙 베리 앤 베이 바디크림** 이제 막 수확한 월계수 잎의 신선함에 특 쓰는 블랙베리 과즙을 담은 상쾌한 향이 스트레시까지 날려버린다. 모던하고 시크한 향으로 여러 뷰티 에디터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다.
- 5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 당신에게 피오니 앤 블러쉬 스웨이드 바디크림** 꽃의 귀족, 화려하게 피어난 적목과 붉은 사의 향기로운 과즙, 순수한 재스민, 장미, 카네이션, 블러시 스웨이드의 부드러운 향이 어우러진 로맨틱하고 여성스러운 향.

black tea Times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높은 만족도로 프레스쉬의 대표 제품이 된 블랙 티 퍼펙팅 마스크. 베스트셀러 대열에 합류한 세럼과 크림에 이어 최신작 트리트먼트 토너와 로션, 아이크림까지 추가하며 블랙 티 컬렉션의 완벽한 라인업을 구축했다. 노화 방지에 탁월한 블랙 티를 곁에 두어야 하는 이유.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탁월한 항산화 효과를 지닌 블랙 티

뉴욕에서 탄생한 프레스쉬는 늘 전통과 천연 원료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데 주목한다. 상처를 치유하는 소독제로 알려진 설탕,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소이와 밀크, 기원전 6세기부터 민간요법 재료로 전해져 내려오는 클레이, 일본의 게이샤들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 시계 등 잔구한 원료와 최첨단 기술력을 전복한 컬렉션이 그 예다. 프레스쉬의 창립자 레브 글라즈먼(Lev Glazman)이 어린 시절 상처를 입었을 때 할머니가 스독해주셨던 기원을 바탕으로 만든 슈가 라인은 단순하지만 매력적이며 효과 역시 탁월하다. 지금 소개하는 블랙 티 컬렉션 역시 프레스쉬 설립자 부부가 즐겨 마시던 kombucha(kombucha)에서 비롯했다고 말한다. 발효한 블랙 티를 일컫는 kombucha는 2백50년 전부터 '블로장생의 요약'이라고 불릴 만큼 피부 세포에 에너지를 불어넣어 콜라겐 생성을 활성화한다. 블랙 티의 주요 성분은 불면증 개선, 지방 분해, 이노 활동의 촉진으로 체내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폴리페놀과 카테킨이다. 체내에 공급되는 산소는 필요한 만큼만 쓰이고 나머지는 혈관을 떠돌아 공기와 결합해 활성산소가 된다. 이는 마치 사과의 갈변 현상과 비슷한데, 체내에 남은 활성산소는 신체 노화를 촉진하고, 암세포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런 활성산소는 항산화 성분으로 섭취해 최대한 빨리 몸에서 배출해야 노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블랙 티에는 비타민 A·C·E에 들어 있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다량 들어 있어 노화 방지에 탁월하다. 블랙 티 컬렉션에는 블랙 티 성분의 효과를 극대화해줄 리페어 & 리스토어 콜플렉스가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 블랙 티 발효물, 블랙 티 잎 추출물, 블랙베리 잎 추출물, 리치 시드 추출물이 결합되어 풍부한 영양을 공급하는 데 효과적이다.

토너부터 마스크 팩까지, 블랙 티 컬렉션

블랙 티 컬렉션의 대표 주자는 단연 안티에이징 영양 마스크, '블랙 티 인스턴트 퍼펙팅 마스크다. 슈가 페이스 폴리쉬, 로즈 페이스 마스크의 개념을 잇는 이 제품은 프레스쉬 베스트 마스크 트리오로 불리며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중 하나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유명 블로거들은 마스크 레이어링 후기를 공유하며 프레스쉬만의 독특한 사용법을 전파하고 있다. 마랭과 슈크림이 결합된 듯한 텍스처가 특징인 워시 오프 타입의 블랙 티 마스크는 콜링 기능이 담겨 피부 온도를 낮추고 자극을 최소화하며, 한 번만 사용해도 촉촉해진 피부결을 경험하게 해준다. 마스크와 함께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블랙 티 에이지-딜레이 크림과 '블랙 티 에이지-세럼은 주름 개선 기능성 인증 제품으로, 함께 사용했을 때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테스트에 참여한 소비자 패널의 90% 이상이 탄력과 피부결 개선을 눈으로 확인했다는 결과를 얻었을 만큼 신뢰도가 높다. 블랙 티 라인의 꾸준한 인기로 힘을 보태줄 최신팩도 연달아 출시되었다. 피부결을 정돈하는 트리트먼트 토너, 블랙 티 에이지-딜레이 인스턴트 인퓨전은 영양감이 느껴지는 농축된 제형으로 피부에 수분 길을 터준다. 자진 눈가에 생기는 '다하는 블랙 티 에이지-딜레이 아이 컨센트레이트에는 프레스쉬의 새로운 성분인 노니 프루트 주스가 농축되어 노화된 눈가 피부 고민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며, 데이 타임을 위한 '블랙 티 에이지-딜레이 로션은 SPF 20의 자외선 차단 기능을 담아 낮바르기 쉬운 제형으로 완성되었다. 팩팩팅 마스크부터 인퓨전에서 크림까지 스킨케어의 첫 단계와 마지막을 책임지는 블랙 티의 완벽한 라인업이라면 울가를 극적인 항산화 효과를 기대해보자. 문의 080-822-9500 에디터 **이예진**



eternal Feminine

"나는 그 누구도 만든 적이 없는, 매우 독특한 향수를 만들고 싶었다. 진짜 여인의 향이 나는 여자 향수를 원했다." 20세기 패션을 새로 쓴 가브리엘 샤넬의 전설을 담은, 시대를 초월한 향수의 새로운 표현, 'N°5 오 프르미에르'.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영원한 여성성과 여성 향수의 고전, 샤넬 N°5

"패션은 사라져도 스타일은 남는다"라고 한 가브리엘 샤넬의 말처럼 그녀는 세상을 떠났지만 이른바 '샤넬 스타일'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 여성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가브리엘 샤넬의 놀람처럼 단순한 블랙 드레스와 투피스 슈트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 그리고 흑백영화 속 마릴린 먼로가 즐겨 사용한 N°5 향수가 지금까지도 여성 향수의 대명사인 까닭은 무엇일까. 샤넬은 20세기의 새로운 여성상을 위해, 또 그에 걸맞은 자유를 부여하기 위해 여성복에 최초로 남성복의 디테일을 사용했다. 그럼에도 모든 의상은 여성스러웠으며 우아했다. 그리고 1921년 마침내, 이 같은 패션 철학을 그대로 담아낸 전설의 향수 N°5를 만들었다. 프랑스 그라스 지방의 재스민과 5월의 장미를 결합한, 어떠한 꽃에도 존재하지 않는 향기이자 여성을 신비로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향수의 고전이 탄생한 것이다. 가브리엘 샤넬의 조력자였던 조향사 에르네스트 보는 이 향기를 일컬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프레시한 향기'라고 표현했을 만큼 N°5는 진정한 여인의 향을 담은 유일한 향수다.

N°5의 재해석, '오 프르미에르'

가브리엘 샤넬은 파리에서 2개의 방을 오가며 지냈다. 낮에는 강변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서 일했고, 밤에는 리즈 호텔에서 휴식을 취했다. 리즈 호텔 창문에 선 방동 광장이 한눈에 내려다보였는데, 그녀에게 방동 광장은 낮에는 일상을 보내는 현실 세계이자, 밤에는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이 방동 광장에서 영감을 얻어 다이아몬드처럼 카보숑 컷을 적용한 팔각형의 N°5 향수병 마개를 탄생시켰다. 2008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보관될 정도로 디자인성을 인정받은 이 보틀에 N°5를 재해석한 새로운 향수가 담겼는데, 다음 아년 'N°5 오 프르미에르'다. 이 향수는 샤넬의 향을 만드는 심장이라 불리는 조향사 자크 뿔쉴의 손에서 탄생했다. 에르네스트 보의 N°5가 그림이라면 자크 뿔쉴의 오 프르미에르는 수채화에 비유되는데, 선명한 그림 위를 물은 머금은 붓이 지나간 듯 한층 투명하고 맑은 향을 발산하기 때문이다. 이는 고전의 플랫폼 위에 시대적 감성을 잘 녹여낸 소설처럼 현대적이고 감각적이다. 피부에 닿는 순간 일렁일렁, 재스민의 화려함과 갓 피어난 5월의 장미 향이 쏟아지는 정원을 연상케 하고, 끈이어 달콤한 바닐라와 따뜻한 베티베르 향이 감각적인 오라와 여인의 향기를 선사한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은은하고 프레시하게 남는 잔향은 오 프르미에르의 매력을 더욱 상승시킨다. 2014년에 새롭게 선보이는 오 프르미에르는 더욱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50ml, 100ml의 간편한 스프레이 타입으로 출시한다. 이제 우린 이 새로운 오 프르미에르로 샤넬의 전설을 즐길 일만 남았다. 50ml 14만1천원, 100ml 20만3천원. 문의 080-332-2700 에디터 **권유진**



SPECIAL EVENT COUPON

〈스타일 조선일보〉와 프레스쉬가 함께하는 블랙 티 에이지-딜레이 크림 체험 키트 증정 프로모션

본 쿠폰을 지참하고 프레스쉬 백화점 매장을 방문하시는 〈스타일 조선일보〉 독자 여러분께 안티에이징을 위한 데일리 크림인 프레스쉬 블랙 티 에이지-딜레이 크림(20ml, 6만2천원 상당)을 드립니다.



◆ 기간 2014년 10월 1일(수)~12월(일) ◆ 문의 080-822-9500
 ◆ 증정 장소 신세계백화점 본점·강남점, 갤러리아 명품관 WEST, 현대백화점 본점·무역점, 롯데백화점 본점·잠실점의 프레스쉬 매장
 ※ 1인 1개 한정수량으로 증정 한정됩니다. ※ 증정품이 조기 소진될 경우 추가 증정이 불가합니다.

SHOWROOM

BEAUTY



에스티 로더



프레쉬



조 말론 런던



불가리



LIFESTYLE



골드브 노페



디올



에스티 로더 핑크 리본 리미티드 에디션 에스티 로더 컴파니즈는 지금까지 지난 20여 년간 약 5백40억원(5천3백만달러) 이상을 전 세계의 유망한 연구와 교육, 의료 서비스를 위해 지원하였으며, 지난 13년간 한국에서 유망 분야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인식을 높이는 활동에 힘써왔다. 2014년 역시 진행하는 유망의 의식 향상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핑크 리본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을 선보이며, 판매 수익금 일부를 대한암협회에 기부하고 있다. 문의 02-3440-2772

프레쉬 크림 앙시엔느 소프트 크림 출시 행사 프레쉬가 크림 앙시엔느 소프트 크림 출시를 기념해 론칭 행사를 진행했다. 론칭을 축하하기 위해 방한한 프레쉬 공동 창립자 레브 글레이즈먼(Lev Glazman)과 알

리나 로이버그(Alina Roytberg)가 참석해 프레쉬 브랜드 소개와 신제품 출시 배경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생크림처럼 한층 부드러운 텍스처로 완성한 이본 신제품은 탁월한 수분감과 발림성이 단연 돋보인다. 문의 080-822-9500

조 말론 런던 갤러리아 명품관 매장 오픈 조 말론 런던이 론칭 2주년을 맞아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에 네 번째 부티크를 오픈한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비롯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 이어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에서 만나 볼 수 있게 되었다. 오픈을 기념해 조 말론 런던 디자이너 미나 플라워 백 증정, 이니스 각인 셔츠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문의 02-3440-2750

불가리 레짐에 컬렉션 출시 불가리 향수가 하이엔드 퍼퓸, 레짐에(Le Gemme) 컬렉션을 선보인다. 에미 시스트, 시트린, 터피이즈, 투르말린 등 불가리의 가장

이름다운 6가지 쟁쟁한에서 영감을 받아, 주얼리만이 지닌 최고의 아름다움을 향으로 표현했다. 귀중한 것들을 운반할 때만 사용되던 고대 로마의 향이리 암포리를 고급스럽게 해석한 보틀 역시 예사롭지 않다. 문의 080-990-8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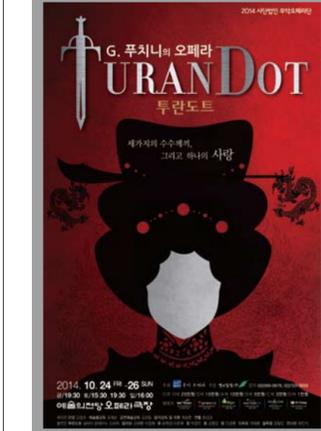
골드브 노페 시너지 시나지프 라인 리뉴얼 골드브 노페의 시나지프(SYNACTIF) 라인 리뉴얼 출시된다. 프랑스어 'synergie(상승 효과)'와 'active(활성)'의 합성어인 시나지프는 세계 최초로 피부 노폐물의 배출을 도와 안에서부터 빛을 발하는 정화된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어주는 스킨케어 라인이다. 새로 워진 시나지프는 사본, 로쌈, 이드라망 주르, 이드라망 뉴, 크림 등 57가지 아이템으로 구성했다. 문의 02-3456-0195

디올 루즈 디올 밤 디올에서 새로운 립 제품, 루즈 디올 밤을 출시한다. 디올의 립 스틱 라인에 비해 천연 립 케어 성분을 가장 풍부하게 함유한 제품으로, 섬세한 텍스처와 반짝이는 컬러, 오래 유지되는 지속력까지 담았다. 코랄, 로즈우드, 인텐스 핑크 등 14가지 컬러로 선보인다. 문의 02-3438-9631

샤넬 오 프리미에르 샤넬에서 N5 향수의 스타일 코드를 표현한 오 프리미에르를 출시한다. 파리 방통광장의 형태에서 영감을 받은 이 향수는 다이아몬드 커팅에 사용하는 카보숑(cabochon) 컷을 반영한 보틀이 매력적인 플로럴 부케 향수다. 일망일망, 바닐라, 머스키 노트의 부드러운 터치와 재스민, 장미 애플솔루트의 섬세한 조합이 매력적이다. 리퍼되지 않는 스프레이 타입으로, 2가지 사이즈로 출시된다. 문의 080-332-2700

나스 필립 림 네일 컬렉션 나스가 패션 디자이너 필립 림과 협업해 선보이는 네일 컬렉션을 소개한다. 모던하면서도 강인한 필립 림의 디자인을 담은 네일 컬렉션은 그림자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컬러를 콘셉트로, 아프리카 바이올렛, 샴페인, 블루 데님, 라커 레드 등 총 7가지 컬러를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인다. 문의 02-6905-3747

캐논 2014 하반기 콤팩트 카메라 신제품 발표 캐논이 2014년 하반기 콤팩트 카메라 신제품을 공개했다. 파워샷 G7 X, 파워샷 N2, 파워샷 SX60 HS, 파워샷 SX400 IS 등 총 47종이, 1.0형 센서를 탑재한 인도적인 성능의 프리미엄 하이엔드 카메라는 물론 셀프 촬영에 최적화된 카메라, 세계 최고 배율 광학 65배 줌 기능을 탑재한 카메라 등 향상된 성능과 기능으로 카메라 각각의 개성을 살렸다. 11월 출시 예정인 파워샷 N2를 제외하고는 모두 10월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1588-8133



무인오페라 오페라 투란도트 무인오페라가 푸치니의 색다른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오페라, 《투란도트》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선보인다. 이탈리아 토레 델 리고 푸치니 페스티벌에서 극찬을 받은 연출가 장강균의 섬세한 연출로 고대 중국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했다. 서사적 특징뿐 아니라 관현악의 풍요로운 음향, 다중적인 성부의 구성 등 인체적인 음향 효과로 기대를 모은다. 문의 02-720-3933

FASHION

발리 락업 백 스위스 럭셔리 브랜드 발리에서 새로운 2014 F/W 여성 백 라인을 선보인다. 일명 락업(Lock-up)이라 불리는 이 백은 트레인스포팅(trainspotting)을 모티브로 한 새로운 메탈 클로저의 부드러운 송아지가죽 솔더백이다. 길이 조절과 탈착이 가능한 스트랩 덕분에 클러치 백, 솔더백, 크로스백 등 다양한 스타일로 변신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목동점, 부산점, 대구점과 신세계백화점 충정로점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67-8935

몽클레르 새로운 유럽 매장 오픈 몽클레르 이탈리아 베니스에 첫 단독 매장인 리움 지역 특 제레메 매장을 오픈하며 총 1백40여 개의 단독 매장을 보유하게 되었다. 인터리어는 브랜드의 근간인 '오트 몽타뉴(Haute Montagne)' 스타일을 반영한다. 벽과 천장은 고급스러운 대리석과 나무를 사용했고, 디스플레이는 존은 유리나 메탈로 마감했다. 특히 베니스 매장은 지역 내 첫 단독 매장인 리움 지역 특유의 화려한 컬러 색채를 활용함으로써 주변 경관과의 조화까지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문의 02-3440-1195

자방시 온 더 런 투어 코스튬 제작 자방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리카르도 티시는 지난 6월부터 북미 지역 16개 도시를 순회한 후 유럽으로 이어지는 '온 더 런 투어:비온세제이 지 투어를 위해 코스튬을 제작했다. 비온세를 위해 오토 쿠티르의 상 3발을 제작했으며, 제1지는 2015 S/S 컬렉션에서 선보인 텍시드와 흑백 선조치 티셔츠 등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 문의 02-3440-3923

버버리 캔버스 체크 가죽 블로즈버리 버버리가 블로즈버리 미디엄 사이즈를 출시한다. 버버리 프레스코 구유 예술적인 감각과 실용성을 결합한 아이템으로, 핸드메이드로 완성한 튼튼 손잡이, 금속 디테일,

디플 지퍼 등이 특징이다. 탈착 가능한 가죽 어깨끈, 핸드페이팅된 모시리로 마무리해 고급스럽다는 것도 장점이다. 문의 02-3485-6583

프라다 커스터마이징 슈즈 프라다에서 일명 '미크로 슈즈'라고 불리는 레이스업 슈즈를 고객의 취향에 따라 제작할 수 있는 MTO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슈즈 컬러 32가지, 소재, 패턴, 약 등 37가지 소재, 리버 솔 57가지 컬러 중 선택할 수 있다. 1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시작으로 현대백화점 본점과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 신세계백화점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약 60일간의 기간이 걸린다. 문의 02-3218-5331

펜디 바이더웨이 백 펜디가 2014 F/W 컬렉션에서 최고 세련된 도시 여성을 위한 바이더웨이 백을 선보인다. 스트랩을 길게 늘어뜨려 솔더백으로 이용하거나, 핸들 부분을 손으로 감싸 쥐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연출할 수 있다. 가죽을 비롯해 모피, 송치, 파이톤 등 화려



몽클레르



자방시

한 컬러와 소재의 매치가 돋보인다. 문의 02-2056-9023

토즈 뉴욕 부티크 리오프닝 행사 토즈가 뉴욕 매디슨가의 플래그십 스토어 리뉴얼 오픈을 축하하기 위해 뉴욕의 레스토랑 빌보케에서 라틴아프리카와 디너를 진행했다. 시선을 사로잡는 8개의 인상적인 컬러로 구성된 와벽은 슈퍼(Supa) 대리석으로 꾸며졌으며, 이탈리아의 역사적 건축물을 재해석한 패턴은 토즈의 새로운 이미지를 대변한다. 오프닝 행사에서는 네거티브를 비롯해 이완 맥그리거, 리처드 거머 등 세계적인 유명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문의 02-3448-8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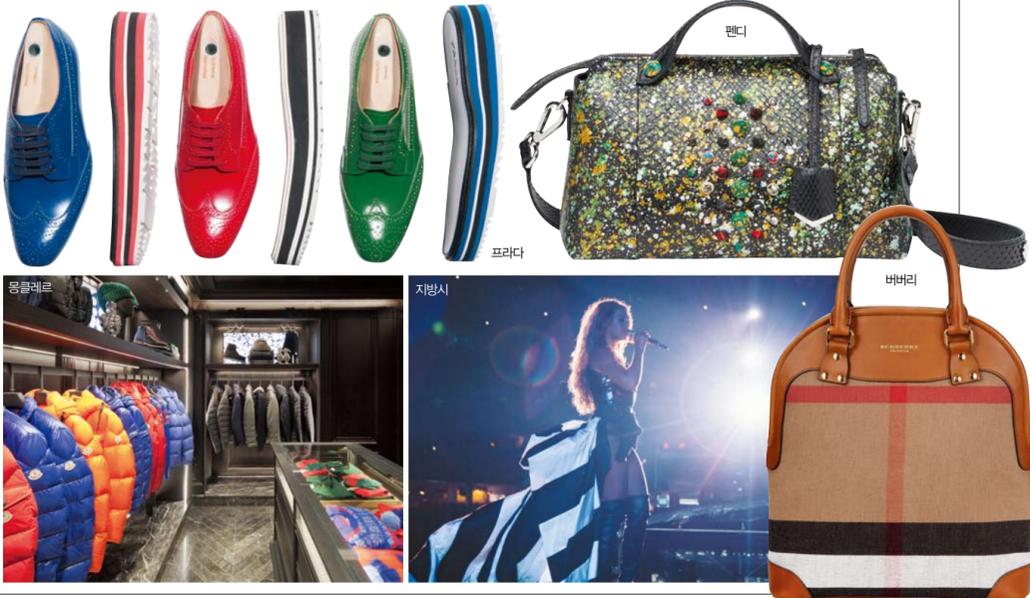
셀린느 코인 백 셀린느가 2014년 F/W 시즌을 맞아 코인 백을 출시한다. 가방 모양을 장식한 원형 메탈 디테일이 특징이며, 부드러운 나파 양가죽을 사용해 고급스럽게 완성했다. 오프와 내피 사이의 부드러운 패딩은 볼륨감을 더한다. 블랙과 버건디 2가지 컬러로 출시한다. 문의 02-540-0486



셀린느



토즈



펜디

프라다

버버리

판도라 2014 F/W 론칭 프레젠테이션

덴마크 주얼리 브랜드 판도라가 2014 F/W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고풍스러운 정원처럼 꾸민 공간에서는 2014 F/W 컬렉션부터 크리스마스 컬렉션까지 하반기를 이끄는 판도라의 컬렉션을 총망라해 소개했다. 가을 컬렉션의 메인 테마인 'Mystical Fairytale'은 오직, 에디션 왕들을 표현한 창과 화려하게 빛나는 무라노 글라스로 동화적인 느낌을 선보였으며,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판도라의 새로운 파인 주얼리 시리즈인 '샤이닝 리브스(Shimmering Leaves)'는 자연스러운 나뭇잎의 매력을 이어와와 핀드, 링에 표현해냈다. 나뭇잎을 그대로 가져온 듯한 디테일과 견고함에서 파인 주얼리로서 향상된 품질을 느낄 수 있으며, 반짝이는 지르코니아 젠스톤과 14K 옐로 골드로 장식한 스텔링 실버 메탈이 조화를 이룬다. 20세기 아르누보 스타일을 담은 미스틱 플로랄(Mystic Floral)은 다크 블랙 에나멜과 화이트 필의 장제된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다. 핸드메이드 참으로 여성 내면의 가치를 전달하는 '에센스 컬렉션(Essence Collection)'에서는 기존의 24가지 참에 새로운 의미를 더한 12가지 새로운 컬렉션을 소개했다. 14K 골드 컬러의 참은 낭만적인 에너지와 태양의 힘을 연상시키며 무와 성공의 의미를 담았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12월을 위한 크리스마스 컬렉션이 기다리고 있었다. 젊은 밤하늘의 별들과 은하계의 아름다움을 담은 스타리 나잇, 코스믹 라인과 눈사람, 산타클로스, 루돌프, 테디베어를 담은 앙증맞고 컬러풀한 참은 크리스마스의 따뜻한 감성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문의 02-551-5717



각과 세련된 디자인의 조합이 돋보이는 스포츠 시리즈는 로타이팅 베젤과 200m 방수 기능을 더해 보다 역동적인 느낌으로 완성되었다. 블랙 다이얼과 실버 메탈 스트랩의 조화가 현대적이며, 발광 처리한 화이트 인텍스와 핸드로 가시성을 높였다. 전구 갤러리 애플리케이션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2-3284-1300

스워로브스키 스타더스트 스워로브스키에서 2014 F/W 시즌을 맞아 '스타더스트(Stardust)' 브라이덜링을 출시한다. 밤하늘의 별을 담은 듯한 스타더스트는 1천4백80개의 크리스탈로 이루어져 어느 각도에서도 눈부신 반짝임을 볼 수 있다. 푸시야, 레드, 핑크, 골드, 블루, 블랙, 그레이 등 12가지 컬러로 출시되며 길이에 따라 브라이덜링 또는 네크리스로 연출할 수 있다. 문의 1661-9060

그라프 엔티크 비엔날레 참가 영국 하이 주얼리 브랜드 그라프가 파리에 열리는 엔티크 비엔날레에 참가했다. 핀드 혹은 브로치로 착용 가능한 '로알 오브 스타 파리'는 1백7.46캐럿의 핏시 옐로 쿠션 컷 다이아몬드인 '그라프 센츨러워' 1백캐럿 D FL 페어 셰이프 다이아몬드 드롭인 '그라프 퍼펙션'으로 이루어진 제품으로 시선을 끌었다. 10.47캐럿 비버드 블루 IF 브리올레트 컷 다이아몬드 컵링의 라폴리에 블루 드레브 역시 눈부신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문의 02-2256-6810

페라가모 워치 1898 스포츠 페라가모 워치에서 페라가모 1898 스포츠를 새롭게 선보인다. 스포티한 감



타파니

까르띠에

오메가

페라가모

스워로브스키

JEWEL